

2022년도

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전주시의회

목 차

I. 출장 개요	1
1. 개요	3
2. 일정 및 주요내용	4
II. 출장 내용	7
1. 사전 자료조사 및 학습	9
2. 연구과제별 주요 연수 내용	29
III. 정책적 시사점	79
1. 스포츠 특화도시 및 스포츠 관광 측면	81
2. 지역축제 활성화 및 산업화 측면	87
3. 기타 전주시 도입과제	89
IV. 개별 연수보고서	93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및 추진 방향
2. 출장 개요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및 추진 방향

□ 목 적

- 2023 전주월드시니어배드민턴대회의 성공적인 대회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2022 YONEX 프랑스 오픈 배드민턴 대회 참관을 통한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 현 정부 공약사업인 지역 스포츠 특화도시 육성정책에 맞춰 파리·런던·리버풀·웬블던 등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에 대한 선진 사례 연구
- 전 세계 공연예술의 허브로 자리잡은 에딘버러 방문을 통해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된 민간단체의 활동과 경쟁력 및 지역 문화 축제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를 통한 우리 시 도입과제 도출
-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역사·문화 보존 및 관련 산업 발전 방향 연구

□ 추진방향

-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환황해권시대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시민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낙후된 도시 이미지를 벗어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미래세대를 위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변화를 추구
- 내실 있는 활동 및 수집 자료에 대한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선진 정책을 체험하는 기회를 넘어 자치단체 간, 국제교류를 위한 안목을 넓히고, 우리 시가 추구해야 할 정책의 방향을 설정

2. 출장 개요

□ 일반 개요

- (대상국가) 프랑스, 영국
- (출장기간) 2022. 10. 24.(월) ~ 11. 1.(화)
- (출장자) 19명
 - 대표의원 : 운영위원장 김동헌 의원
 - 행정위원회 : 행정위원장 정삼길, 김세혁·김정명·이보순 의원
 - 문화경제위원회 : 문화경제위원장 송영진, 전윤미·김윤철·박혜숙·신유정·은혜정·이성국·장병익 의원
 - 언론기관 : 전주일보 김주형, 새전북신문 양정선
 -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김봉정, 홍보팀장 권동혁, 주무관 민슬기·최용재

□ 출장일정 및 주요내용

일 자	지 역	주 요 일 정	연 구 과 제
10.24. (월) 1일차	인천 파리	• 인천→파리 이동	
10.25. (화) 2일차	파리	• 베르사이유 탐방	• 명품 브랜드 패션쇼 공간 활용을 통한 타 산업과의 융복합 사례를 통한 관광 상품 개발 방향
		• 요넥스 프랑스 오픈 배드민턴 대회 참관	• 2023 전주월드시니어배드민턴대회 홍보 및 벤치마킹
		• 세느강 유람선 탑승	• 경관조명 및 야간관광 활성화의 세계적인 모범도시 프랑스 파리
10.26. (수) 3일차	파리	• 개선문, 샹제리제 거리, 콩코드 광장	• 문화재 보존 및 복원, 장인육성 등
		• 라데팡스	• 도시재생 및 금융중심 도시 구축
10. 27. (목) 4일차	리버풀	• 안필드	• 축구 유산화를 통한 관광지화 성공 사례
		• 맨체스터	• 스포츠 매니지먼트 분야 인재 양성 및 지역 프로축구단과 지역사회의 협업 및 사회공헌 활동
10. 28. (금) 5일차	에딘 버러	• 프린지 축제위원회	• 길거리 축제의 산업화 및 축제의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축제 육성 노하우
		• 에딘버러 성	• 종교, 문학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관광자원화
10. 29. (토) 6일차	윈드 미어	• 윈드미어 국립공원	• 지역 호수를 활용한 관광산업화 및 호수 주변 개발 노하우
10. 30. (일) 7일차	런던	• 대영박물관, 버킹엄 궁전, 타워브릿지, 빅벤, 웨스트민스터 사원 등	• 문화재 및 도시 상징 건축물을 통한 관광 자원화
10. 31. (월) 8일차	런던	• 웬블던 경기장	• 스포츠산업 유산화를 위해 기록, 전시, 보존 방법 및 스포츠 특화도시 육성 방안
11. 1.. (화) 9일차	런던 인천	• 런던→인천 이동	

Ⅱ. 출장 내용

1. 사전 자료조사 및 학습 내용

- ① 국가 일반현황
- ② 연구과제 학습

2. 연구과제별 주요 내용

Ⅱ. 출장 내용

1. 사전 자료조사 및 학습 - ① 국가 일반현

황

방문국가 현황 - 프랑스

□ 일반현황

- 정식명칭은 프랑스공화국(La République de France)이며, 수도는 파리이다.
- 면적은 64만 3801km²로 한반도의 2.5배이고 유럽연합(EU)의 5분의 1의 넓이이다.
- 인구는 2022년 현재 6,542만 명이다. *대한민국 인구 5,162만

□ 역사

- BC 2000년경 북프랑스에 켈트족이 이동해와 서기전 5~3세기 사이에는 프랑스·영국·스페인 등을 정복하였다. 부족국가 간 대립으로 서기전 2세기경부터 로마에 의하여 정복되었다. 5세기경 서로마제국이 멸망함에 따라 게르만민족 중 프랑크인이 세력을 확대하였고 8세기경에는 샤를마뉴가 대제(大帝)가 되어 프랑스·독일·이탈리아에 걸치는 왕국을 건설하였다.
- 샤를마뉴 대제 사후, 843년 베르딩조약으로 동프랑크(독일)·서프랑크(프랑스)·이탈리아로 3분되어 현재와 같은 프랑스의 판도가 정립되었다.

□ 문화

- 프랑스 문화는 켈트, 그리스-로마, 게르만의 요소들이 복합된 고대문명에서 유래한다. 19세기 말에 초등교육의 무상 의무제가 도입되어 국민 대다수가 최소한 문맹을 면함으로써 전반적인 문화 수준이 향상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6세까지 중등교육을 무상 의무제로 실시하고, 빈민층에 대해 재정 지원을 강화한 결과 저소득 집단들의 지적·사회적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 프랑스에서 파리는 과거부터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다른 지방도 문화색이 강하며 때로 이것을 강력하게 고집한다. 최근 들어 특히 1960년대에 북아프리카로부터 건너온 이민들이 프랑스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파리와 마르세유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슬람 공동체들은 회화·음악·무용·문학에 기여했다.

□ 정치

- 대통령은 1962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직접보통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7년이다. 의회는 국민의회(577석, 임기 5년)와 상원(321석, 임기 9년)으로 구성되며, 국민의회 의원의 임기는 5년이고, 소선거구제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 외교에 있어서 프랑스는 미·소 등 초강대국에 맞서는 국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독자적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탈퇴, 핵확산금지조약 비준서명, 유럽공동체(EC) 경제권 강화, 대러시아 외교 등에서 미국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 경제, 산업

- 프랑스는 전후부터 1970년대 중엽까지 상당 기간에 걸쳐 계속된 유례 없는 성장으로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다. 1982년에는 사회당 정부가 국유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결과 확대된 공공부문이 산업 근로자의 1/5 이상을 고용하게 되고, 신용기관의 80% 이상이 국립금융기관들의 관리하에 들어갔다. 그러나 보수당 정부(1986~88)는 국영기업을 대폭 민영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여 거의 100만 명의 고용처를 민간부문으로 돌려놓았다.
-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프랑스 수출액은 45억 6,000만 달러이고 주종목은 선박, 승용차, 축전지, 자동차 부품 등이다. 수입액은 66억 4,200만 달러이고 주종목은 항공기, 화장품, 의약품, 펌프 등이다.

방문국가 현황 - 영국

□ 일반현황

- 정식 국호는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일반 명칭은 영국연합왕국(United Kingdom)이다. 면적은 24만 3,610 km², 인구는 2022년 현재 6,844만명이며, 민족적 구분은 앵글로 색슨족과 켈트족으로 대별된다. 공용어는 표준영어(King's English)이나 켈트계의 켈릭어(Gaelic語)·웨일스어·콘월어(Cornish)도 사용된다.

□ 역사

- 영국은 서기전 55·54년 카이사르(Caesar)의 침공으로 로마의 속주(屬州)가 되어 브리타니아로 불렸다. 약 400년간 로마의 군정이 있던 뒤 앵글로색슨의 침공으로 6~8세기에 7왕국시대가 있었으나 829년 통일왕국을 이루고, 1066년에 봉건국가 노르만조(朝)가 성립되었다.
- 절대군주제는 엘리자베스(Elizabeth) 1세의 치세 이후 점차 쇠퇴하여 17세기 100년 동안의 내란을 경험하고 1688년 명예혁명을 이룩하였으며 이때부터 영국은 입헌군주제하 의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렀다. 18~19세기에는 해외 영토 확장을 통해 '대영제국(大英帝國)'을 건설하였으나, 20세기에 들어와 치른 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대영제국은 '영연방(英聯邦)'으로 탈바꿈하여 사실상 붕괴되었다.

□ 문화

- 영국은 서구문명에 길이 남을 위대한 문화와 지성을 꽃피워 왔는데, 보다 지역적인 면에서 보면 몇몇 문화적 특성과 관습들이 가장 영국적인 특징을 이루고 있는데, 그 예로는 켈트족의 춤과 음악, 음유시적인 전통, 초가지붕을 인 오두막으로 대변되는 전원적 풍경, 마을 술집, 철저한 스포츠맨십, 오후의 사교적인 모임 등이 있다.
- 영국의 문화는 1945년 이래 폭넓게 변화해왔다. 라디오·텔레비전·영화 같은 대중매체와 음반의 출현으로 외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국의 대중문화를 전세계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런던은 곧 많은 사람들에게 파리를 대신하는 향락의 중심지가 되었다.

□ 정치, 외교

- 영국 정치제도의 기본은 입헌군주제하의 의회정치이다. 국왕은 상징적·의전적 기능을 갖는 데 그치고, 복수 정당이 총선거에 참가하여 의회(하원) 내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집권당이 되며, 수상이 수반이 되어 대권을 장악, 행사한다.
- 영국은 영국-네덜란드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부터 인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영국 식민지들이 독립하기 전까지 초강대국으로 서방국가들 중에서는 독보적으로 적이 많은 편이다.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곳들이 대다수 독립했지만, 여전히 영연방 국가들에게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또한,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이 적지 않다.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다른 유럽연

합 회원국들과 갈등이 생겼다. 2021년 3월 16일에 영국 정부는 외교정책의 중심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고 핵무기 보유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경제, 산업

- 세계 경제에서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특별하다. 19세기에는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가장 중요한 산업국가였으나 20세기에 들어와 미국과 서유럽 선진국들, 최근에 이르러 동아시아 국가들에 밀려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영국 경제를 이같은 상대적 쇠퇴의 길로 몰아넣은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타 국가들이 산업화에 박차를 가한 데 비해 영국은 1980년까지 파운드 지역 은행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 경제성장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중요 요인이다.
- 2017년 3월 브렉시트 이전까지, 영국은 EU 소속국가로 한국은 한-EU FTA에 따른 관세 인하 혜택을 받고 있었다. 한국의 대영국 주요 수출품은 해양구조물, 승용차, 선박, 항공기부품, 자동차부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원유, 승용차, 그림, 의약품, 백금 등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대영국 수출액은 59억 6,215만 달러이며, 수입액은 58억 962만 달러이다.

1. 사전 자료조사 및 학습 - ② 연구과제 학습

[연구과제] 세계시니어배드민턴대회 운영

□ 대회 개요

- 대회명 : The BWF World Senior Championships
- 최초개최 : 2003년 시작
- 개최주기 : 2년
- 경기종목 : 연령별 9개 부문(+35,+40,+45,+50,+55,+60,+65,+70,+75)
5개 종목(남/여 단식, 남/여 복식, 혼합복식)
- 시상내역 : 세계 시니어 챔피언으로 선정, 메달 수여
단, 상금은 제공하지 않음
- 대회 개최 현황

개최연도	2011	2013	2015
개최지	캐나다	터키	스웨덴
참가선수	1,329명	1,793명	2,366명
대회규모 (동반자 포함)	3,000명	3,500명	5,000명
개최연도	2017	2019	2021
개최지	인도	폴란드	스페인
참가선수	1,245명	2,639명	1,500명 (43개국)
대회규모 (동반자 포함)	3,000명	5,000명	3,000명

- 35세 이상 은퇴 선수를 포함한 세계선수권 등급의 동호인이 참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배드민턴 시니어 선수권대회
-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세계선수권대회 등급의 대회는 처음 유치 개최하는 상황으로 면밀한 조사·계획·검토 필요

□ 지난 대회 개요(2021)



▲ 2021 월드 시니어 배드민턴대회 로고

- 개최국 : 스페인 안달루시아 주 우엘바 시
- 개최일정 : 2021. 11. 28. ~ 12. 4.
- 참여인원 :
- 개최장소 : Palacio de los Deportes Carolina Marin
 - * 우엘바 시에서 가장 큰 복합스포츠센터로 배드민턴 선수 Carolina Marin을 따서 이름붙여짐.
 - * 1999년 개관, 5,500명 수용을 할 수 있는 경기장
 - * 2018년 4월 유럽 배드민턴 챔피언대회를 개최, 2021년 월드시니어 배드민턴대회 개최함



▲ 2021 월드 시니어 배드민턴대회 경기 모습(스페인 우엘바)

□ 2023 전주 세계시니어배드민턴대회 개요

- 개최장소 : 전주화산체육관(중화산동 소재)
- 개최일정 : 2023. 9. 11.(월) ~ 9. 17.(일)
- 대회규모 : 세계 50개국 3,000여명/ 경제효과 약 50억원
- 경기종목 : 연령별 9개 부문, 5개 종목
- 소요예산 : 약 17억원(지자체 대회유치보조 10(도1, 시9,) 자부담 7)
- 주최주관 : 세계배드민턴연맹, 대한배드민턴협회, 전북도배드민턴협회
-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 2023 세계시니어배드민턴대회 전주시 유치확정 : 2020. 9월
 - 전주시↔대한협회↔전북협회 간 협약식 개최 : 2021. 8월
 - 대회 장소 관련 세계연맹 현장실사 : 2022. 4월
 - 대회준비위원회 구성 : 2022. 7월
 - 사전절차 이행 및 대회 개최일정 확정 등 : 2022. 8-9월
 - 대회조직위원회 구성 및 추진 : 2023. 2월~

▶ (연계출장지) 파리 요넥스 프랑스로프 *개최장소 : 파리 쿠베르탱 체육관
월드시니어배드민턴대회를 1년 여 앞두고 있는 현재, 체육관 리모델링 등
대회 준비를 위한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으로 효과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프랑스 국제 배드민턴 대회 운영 시스템 등을 시찰 예정

[연구과제] 스포츠 특화도시 / 스포츠를 통한 관광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 ⑥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문체부)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 현 정부 체육 정책 개요

○ 목적

-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으로 스포츠 저변 확대
- 국가 위상에 걸맞은 전문체육 지원 강화로 스포츠 경쟁력 강화
- 스포츠 R&D 확대를 통한 스포츠 산업 육성,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 국제교류 확대로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및 위상 제고

○ 주요내용

- (스포츠기본권 보장)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 운동하는 국민에게 혜택 제공(스포츠 마일리지 및 소득공제)을 위한 체육시설 기반 체력인증센터 확충,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스포츠정책 위원회로 개편
- (전문체육 환경 개선) 국가대표 위상 강화 및 실업팀 지원 확대 등 전문체육 육성 강화, 체육 발전 공헌에 대한 영예 제고를 위한 훈·포장 확대, 공제사업 추진 등 체육인 복지 체계 구축

-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스포츠 중심의 지역 랜드마크 조성,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 스포츠 R&D 지원 확대를 통한 스포츠 신산업 육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 구축
-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제고) 글로벌 인재양성(은퇴선수 경력경로 개발),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이스포츠 및 태권도 등 세계에서 사랑받는 국제스포츠 종목 육성

○ 기대효과

-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 (' 21년, 60.8% → ' 27년, 69%)
- 스포츠 산업 시장 확대 (' 21년, 51.5조원 → ' 27년, 100조)

□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 그동안 스포츠 중심의 지역 랜드마크 조성이나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은 체육학계, 언론 등에서 그 필요성이 주장되어 왔으나,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의 개념이 처음으로 국정과제에 등장함
- 스포츠도시 각인은 도시브랜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안임
 - * (강원도 양양) 최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서핑의 메카로 떠오르면서 지역경제에 큰 활기를 불어넣음
 - * (강원도 홍천) 강원도-홍천군-대한탁구협회의 3자 업무협약에 의해 홍천군에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의 탁구전용 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하였고 홍천군은 프로 탁구팀 창단, 대한탁구협회는 전용체육관이 완성되면 홍천으로 이전해 업무를 볼 예정으로 향후 ‘홍천=탁구’라는 공식 성립될 것으로 기대

- 지역 균형발전 세부사업
 - 공공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
 - 지역특화 스포츠 신산업 육성 등 제시
- 스포츠도시 성공 사례
 - 미국 인디애나 폴리스 : 도심 공동화를 스포츠로 극복
 - 영국 셰필드 : 쇠퇴한 철강산업을 스포츠산업으로 대체
 - 호주 멜버른, 뉴질랜드 퀸스타운 : 스포츠를 통해 문화관광 레저 효과 극대화
 - 국내도시 대구(육상), 양양(윈드서핑), 광주(수영)
- 정부는 내년에 5개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를 선정하여 3년간 150억 원(국비 50%)를 지원할 계획에 있음
- 따라서 배드민턴, 농구(KCC), 축구(전북현대)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보유한 전주시 역시 현 정부의 스포츠 분야 국정과제 주요 목표인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연계출장지 ①) 영국 리버풀 구단 - Anfield Stadium

스포츠 특화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사례 연구지로서,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영국 프리미어 구단은 어떻게 구단이 경기장을 관광상품화하고, 그들의 클럽 문화를 유산화하여 도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벤치마킹 예정

▶ (연계출장지 ②) 영국 런던 Wimbleton 테니스구장

전 세계 테니스 선수들과 팬들의 성지이자 Wimbleton 테니스대회가 열리는 곳으로 구장 투어 및 박물관 투어가 운영되고 있음. 경기장의 관광자원화 방법 및 스포츠 자원의 유산화 방법 등 벤치마킹 예정

□ (영국) 리버풀 안필드 경기장

- 영국 잉글랜드 리버풀에 있는 축구 경기장으로 현재 현재 리버풀 FC의 전용구장으로 사용 중
- 1884년에 개장하여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리버풀의 유산
- 수용인원은 54,074명으로 잉글랜드 구장 중 7번째로 많은 좌석수를 가진 경기장이며, UEFA의 4성급 경기장으로 다양한 국제경기를 개최해오고 있음
- 경기장 투어 운영을 통한 관광상품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박물관, 기념품관 등 운영 중임
- 콥(Kop) : 리버풀 FC서포터즈를 통칭해 부르는 단어로 리버풀 홈구장인 안필드를 가득 메운 콥들의 열정적인 응원인 리버풀에게는 큰 힘을, 상대편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을 주는 것으로 유명함
- 리버풀 홈에서 경기가 열리는 경우, 현지 콥 뿐 아니라 전세계의 리버풀 서포터 들이 엄청나게 리버풀을 찾아오고, 시내 펍 등에서는 함께 경기를 관전하는 문화가 있음



□ (영국) 윌블던 테니스 경기장(대회)

- 윌블던 테니스 챔피언십 : 영국 런던 윌블던에서 열리는 테니스 그랜드슬램 대회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
- 경기가 열리는 장소는 영국 런던 머튼 구의 윌블던에 위치한 올 잉글랜드 테니스 클럽(The All England Tennis Club)으로 통상적으로 윌블던 테니스 경기장으로 불림
- 매년 6월 4주차~7월 1주차 경에 열리며, 대회 1주차 일요일에 잔디 보호를 위해 경기를 쉬는 것이 특징임
- 5개 메인 경기, 4개의 주니어 경기, 4개의 초청 경기 부문으로 구성
- 복장규정이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한데,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은 착용하는 모든 복장을 반드시 흰색으로 통일해야 함.
- 경기복은 물론, 양말, 운동화, 헤어밴드, 암밴드 등 모든 것을 흰색으로 착용하도록 규제
- 로얄박스(일종의 VIP석)에 들어가는 관람객의 복장에도 정장착용의 규정을 적용하며, 단정한 복장을 해야 입장이 허용됨
- 2013년 대회 때 주니어 부분에서 한국 테니스의 기대주로 불리는 정현(당시 17세) 선수가 대한민국 테니스 역사상 처음으로 남자단식 결승에 진출, 준우승 기록
- 2022년(올해) 신설된 14세 이하부에서 조세혁이 우승 차지
- 남자 단식 본선에서는 이형택 선수가 2007년에 최고 성적인 32강전까지 진출한 바 있음



연구과제 - 스포츠매니지먼트

□ 스포츠 매니지먼트/ 스포츠 경영이란

- 스포츠를 매개로 한 모든 사업과 활동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과정
- 한국의 스포츠경영학과는 학문적인 연구는 물론 스포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관리자와 마케팅 전문가로서 전문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국의 스포츠 산업 및 교육 관련

- 최근 프로스포츠 활성화 및 각종 스포츠 이벤트가 확대되면서 스포츠산업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의 수요 역시 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 교육 시스템이 발달하지는 못한 상황
- 전주시의 경우 전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물리학, 화학, 수학, 통계학 등 수학과학 영역) 내 스포츠과학과가 있으며 해당 과 내에 세부전공으로 스포츠경영학, 스포츠관광, 스포츠마케팅 등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

▶ (연계출장지) 맨체스터대학 스포츠매니지먼트 유학생 간담회

세계적으로 명성있는 스포츠매니지먼트 학과를 보유한 맨체스터대학의 해당 학과에 재학 중인 유학생과의 간담회를 통해 교과 과정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 교육 방식 등에 대한 전반적인 벤치마킹 예정

연구과제 - 지역 축제 활성화 / 브랜드화 방안

□ 전주시 주요 축제 현황

축제명	개최시기	개 요
전주 국제영화제	4~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출범, 대안 독립영화의 중심 영화제로 자리매김 - 동시대 영화예술의 대안적 흐름, 예술영화의 최전선에 놓인 작품들을 소개 - 창의적 실험과 독립정신지지, 전 세계 영화작가들이 만나고 연대하는 기회 제공 - 2022년도 축제 :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기간) 2022.4.28.~5.7./ 10일간 (개최장소) 영화의거리 등 전주시 일원 (주요내용) 개·폐막식, 영화상영, 컨퍼런스, 전시, 부대행사 등
전주 한지문화 축제	5월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 시작으로 천년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수공예인 발굴, 전주한지 산업화에 기여 - 2022년도 축제 : 제26회 전주한지문화축제 (개최기간) 2022. 5. 5.~ 5. 7./ 3일 간 (개최장소) 한국전통문화전당 (슬 로 건) 한지로 누리고 한지와 노닐다
전주 대사습놀이	5월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국악의 본향인 전주에서 전승되고 있는 전주 대사습놀이의 보존과 유능한 국악예술인 발굴 및 양성
전주 문화재야행	6월/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문화유산을 매개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되는 문화재활용사업으로 전주시의 경우 문화재야행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음
전주 독서대전	9~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책 축제 - 2022년도 축제 : (주제) 책 여행, 발견하는 기쁨 (행사내용) 강연, 공연, 경연, 학술토론, 체험 북마켓 등
전주 비빔밥축제	10월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마을 일원에서 열리는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축제

□ 에든버러 페스티벌

○ 축제개요

(공식명칭) 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축제분야) 예술축제 *클래식, 오페라, 연극, 무용

(개최지역)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개최시기) 매년 8월, 3주 간

(시작연도) 1947년

(주관단체) 에든버러 축제협회(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Society)

(연관축제)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로열 에든버러 밀리터리 타투

○ 특 징

- 1947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황폐해진 스코틀랜드, 영국, 유럽 문화 부흥을 이끌고, 인간 정신을 꽃피우는 기반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작
-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 열리는 8월을 전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로열 에든버러 밀리터리 타투, 에든버러 아트 페스티벌,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북페스티벌, 필름 페스티벌, 에든버러 멜라 등 축제 십여 개가 함께 개최됨



◀ 에든버러 축제가 펼쳐지는 기간 동안의 시내 경관

□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 1947년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 초청받지 못한 극단 8개가 모여 소규모 극장에서 공연을 올린 것이 계기가 됨
- 프린지(Fringe)는 주변 또는 언저리라는 의미
- 해가 지날수록 점차 참가자와 관람객의 호응을 얻어, 1958년에는 페스티벌 프린지 협회(Festival Fringe Society) 설립
- 프린지 협회가 참가 단체들의 공동 마케팅과 홍보를 맡아 조직적인 지원을 하면서 축제는 더욱 발전
- 신청만 하면 축제에 참가할 수 있음(에든버러 페스티벌과 달리 참가자 선정을 하지 않음) → 페스티벌 프린지의 핵심
-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실험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안문화축제로 불리기도 함
- 국내 최초의 언버벌 퍼포먼스인 ‘난타’ 역시 1999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 최고평점을 받고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바 있음
-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의 지속적인 성장은 프린지 페스티벌을 타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됨
 - 아비뇽 페스티벌 : 1967년 off라는 명칭으로 공식초청 작품과 별개로 독립 운영되는 공연이 등장
 - 한국에서는 1998년 한국적 프린지의 실험과 모색을 모토로 독립 예술제가 개최, 2002년 5회를 맞이하면서 국제적 성격 행사로 확대, 서울프린지페스티벌(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독립예술축제)로 명칭 변경하여 운영

▶ (연계출장지) 에든버러 프린지 소사이어티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축제의 활성화, 브랜드화 방안에 대해 벤치마킹 예정

연구과제 - 야간관광 활성화, 문화유산 활용 등 방안

□ 베르사유 궁전

- 프랑스의 문화유산으로 베르사유 시(프랑스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22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에 있는 프랑스 왕국 부르봉 왕조 시대에 건설된 궁전.
- 바로크 건축의 걸작으로, 태양왕 루이 14세의 강력한 권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건축물
- 건설에는 무려 25,000~36,000명의 인부가 매년 동원되었고, 궁전 건물의 면적보다 더 넓은 정원이 유명하며, 별궁으로 대 트리아농 궁과 소 트리아농 궁이 있음
- 루이 14세, 루이 15세, 루이 16세와 왕실 가족들이 거주했고, 유럽에는 베르사유 궁전을 모방한 궁전이 많으며 그만큼 현재는 관광지로서도 명성이 있는 곳
 - 보통 파리 관광 시 하루 정도를 베르사유 관광으로 할애하는 경우가 많으며, 뮤지엄패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파리 시내 박물관, 미술관과 연계한 패스가 만들어져 있음
- 루이 14세의 궁전 건설 목적은 절대왕정의 확립으로, 당시에 도 베르사유 궁전은 그 시대의 랜드마크였음.
- (참고) 프랑스 합동의회
 - 프랑스의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궁전을 의사당으로 사용하고 있음. 상원은 퉁상부르 궁전, 하원은 부르봉 궁전에서 회의를 진행함. 다만 헌법개정이나 대통령 연설이 있는 경우 베르사유 궁전에 모여서 회의를 진행함. 양원의 모임을 프랑스 합동 의회라고 부르며 의회당은 1875년 전쟁 회랑과 시가지를 마주하는 구역 사이의 중정을 개조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음
- 현재는 관광자원으로서 궁전과 정원을 개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패션쇼 개최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여 장소를 활용

□ 파리 시내 야간경관

- 관광객들에게 파리의 야경은 파리 여행의 하이라이트로 손꼽히고 있음.
- 파리를 좌우로 양분하는 강으로 역사적 명소 등 대부분이 세느강 강둑을 따라 위치해 있음에 따라 바토무슈라는 유람선이 운행되는데, 야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인 유람선은 프랑스 여행의 필수코스로 불리며 연중 수많은 관광객이 몰림.
- 루브르박물관, 오르세미술관, 노트르담 대성당, 알렉상드르 3세 다리 등 파리의 주요한 명소에는 야간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관광객들은 유람선에 탑승하여 야경을 감상함
- 바토무슈는 1867년부터 운행하여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크루즈로, 일반 바토무슈 크루즈, 파리 야경을 천천히 감상하면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디너 크루즈, 일반 바토무슈 크루즈보다 조금 더 프라이빗한 바토 파리지앵 3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연계출장지) 베르사유 궁전 및 파리 시내 문화유산

파리의 관광자원으로 손꼽히는 베르사유 궁전 및 파리 시내의 문화 유산을 프랑스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단순 보존을 넘어 관광 자원으로 활성화시키고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

2. 연구과제별 주요 연수 내용

2023 전주세계시니어 배드민턴대회 홍보

□ 요넥스 프랑스 오픈 대회 개요

- (대 회 명) 2022 요넥스 프랑스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Super 750)
- (대회기간) 2022. 10. 25. ~ 10. 30./ 6일 간
- (대회장소) 프랑스 파리 쿠베르탱 경기장
- (2021년도 실적)
 - 30개국, 227명 선수 참가, 선수 관계자 등 약 19,000명 파리 방문

▶ 세계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모이는 권위 있는 대회로 요넥스 프랑스 오픈 대회는 매년 파리 쿠베르탱 경기장을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음. 배드민턴계 주요 선수 및 관계자들이 이 시기 파리 경기장을 방문함에 따라 2023 전주 시니어 배드민턴대회를 홍보함



▲ 2023 전주시니어배드민턴대회 홍보

가변형 실내체육관을 활용한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운영 - 요넥스 프랑스 오픈 배드민턴대회(쿠베르탱 체육관)

□ (파리시) 쿠베르탱 경기장

○ (명 칭) Stade Pierre de Coubertin

○ (위 치)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바스티유 광장, 판테온 등 파리 중심까지 15~20분 거리에 위치

○ (역 사) 1937년 준공,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파괴되어 한 차례 재건되었으며, 1961년 파리 학살 당시 알제리계 주민 수용소로 사용되기도 함. 1990년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해 현재 모습으로 운영

○ (소 유) 프랑스 파리 시 *운영 : 프랑스 체육부 청소년 부서

○ (좌석수) 공식 4,016석

*배드민턴/핸드볼 3,400석, 복싱 4,800석 등 종목별 변동

○ (홈구단) 파리 생제르맹 핸드볼

* 파리 생제르맹 핸드볼팀의 홈구장이나, 핸드볼팀의 경기가 없을 때에는 기존 종목 외 다른 경기(배드민턴, 농구, 펜싱 등)를 함

*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골볼 대회 개최지로 선정



▲ 파리 쿠베르탱 경기장

□ 배드민턴 경기장 관련 기준 요약

- 조명 *화산체육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
 - 최소 조명 레벨은 1,000Lux 이며, 코트 구역 전체에 골고루 빛을 공급해야 함
 - 코트 뒤 또는 측면을 따라 일광이나 햇빛의 모든 광원 차단
 - 조명은 눈부심을 방지하고 셔틀이 잘 보이도록 경기 구역 바로 뒤에 위치하지 않아야 함
- 경기장 규격 및 조건
 - 경기장 플로어 사이즈 : 50m(35m 이상 권장)
 - 코트와 코트 사이, TV 중계장비, 심판대, 광고보드, 판독장비 등 설치
 - 관중 좌석 수는 3,000석 이상 시설이 권장
 - 경기장 높이 : 12m(월드투어 이상급) , 9m(기타 국제대회) 이상
 - 경기장 배경 및 천장 색상은 셔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반드시 어두운 색 사용
 - 경기장 온도는 섭씨 18~30도 사이여야 함
 - 모든 공기이동(에어컨 또는 기타 바람 등) 철저히 통제 또는 없애야 함
- 배드민턴대회 개최에 필요한 공동시설
 - 경기장 전자, 음향 시설 : 경기진행을 위한 인터넷 네트워크 및 음향 설치 필요
 - 경기장 부대시설 : 상황실, 선수 탈의실, 선수 휴게실, 경기 진행석, 레프리스실, 심판실, 선심실, 보도 방송실, 운영요원실, 도핑실, 경기물품실, 의무실, 마사지실 등의 보조 진행실 필요
 - 워밍업장(연습장) : 경기 전 워업 및 연습용 코트 (대회 규모에 따라 10~20개 코트)

□ 주요 견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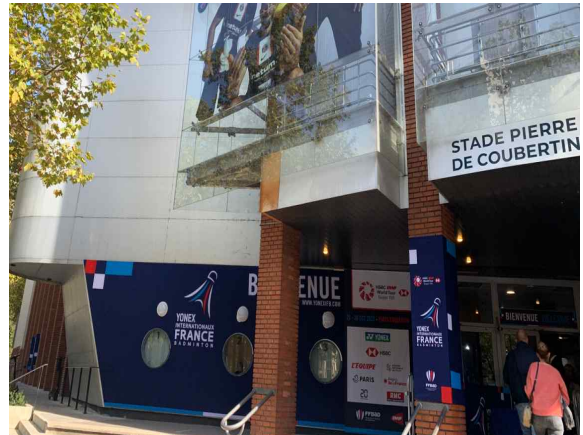
- 프랑스 배드민턴 협회장 미팅
- 경기장 전체 시설 투어 및 대회 운영 관련 인터뷰
*(면담자) Pierre LUSSET/ 요넥스 프랑스 오픈대회 관계자

○ 경기장 외부

- 경기장 외부는 현장티켓부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평상시와 달리 경기장 외관 전체를 요넥스 프랑스 오픈 배드민턴 대회가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관련 디자인으로 랩핑하여 홍보



▲ 평상시 경기장 외관 모습



▲ 경기장 방문 당시 모습(대회 진행 중)

○ 경기장 내부 로비

- 경기장 로비에서는 배드민턴 대회와 관련한 기념품점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대나무 통에 대회 로고 등을 전각한 셔틀콕 케이스, 로고 및 셔틀콕을 상징하는 전등 등을 판매함
- 아프리카 어린이 배드민턴을 위한 사회공헌 단체의 판매부스 운영 및 요넥스 배드민턴 용품 판매(세일판매 등)
- 대회에 어린이, 청소년 등의 관람률도 높은 것으로 보였는데, 이들을 위한 배드민턴 VR 체험공간 마련으로 배드민턴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함

- 국제배드민턴협회(BWF) 캐릭터를 활용한 포토존, 프랑스 오픈 대회 포토존 등을 운영하여 방문객들의 기념 촬영을 유도함(홍보)



▲ 기념품점 운영



▲ VR 체험관

○ 경기장 메인 코트

- 경기장 관중석 규모는 3,500석이며 3개 층으로 구성됨. 단, 경기 종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
- 5개 종목(남/여 단식, 남/여 복식, 혼합복식) 경기가 진행되며 방문

당시에는 경기 첫날로 4개 코트가 운영되었으나, 예선부터 결승에 이르기까지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코트 면수는 4개→3개→2개→1개로 코트 면수를 변경 설치하여 운영함.
결승전은 중앙에 1개의 코트 설치하여 관람객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경기장 내부

- 티켓 가격은 좌석별(4개 구역), 경기별로 상이함
*1~2층 중심/gold, 1~2층 외곽/cat1, 3층/cat2 경기코트 측면부분(좌/우)/cat3 구분
- 티켓은 온라인 예매와 현장 예매 모두 가능하며, 일반/회원 구분에 따라 가격이 상이함. 또한 예선경기에서 결승경기로 올라갈수록 가격 상승

Cat.Gold 좌석 기준		
구분	public	members
예선 1차전 경기	32유로	24유로
결승 경기	64유로	54유로

- 그룹티켓(friends offer) : 클럽에 가입된 배드민턴 동호인 포함(필수조건) 6명 이상 할인, 이 외에도 장애인 티켓 할인, 협회 및 기업 단체할인 등 다양한 할인정책을 펼치고 있음

- 경기장은 전체적으로 대회 기본 디자인을 활용한 푸른색 배경으로 랩핑하여 선수들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함
- 경기장 바닥 역시 BWS 기준에 맞도록 사이즈 및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에 맞는 바닥으로 설치하고, 입장/퇴장로 별도 운영함
- 조명은 배드민턴 경기 운영을 위해 별도로 설치함



▲ 경기장 내부

○ 보조코트(웍업장)

- 경기장 관중석 규모는 3,500석이며 3개 층으로 구성됨. 단, 경기 종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
- 국제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보조코트가 반드시 필요
- 프랑스 쿠베르탱 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과 별도로 총 3개의 보조코트, 탈의실, 경기 진행상황 모니터, 라켓수리코너, 간단한 식음료 섭취 및 휴식공간 정도로 구성
- 보조코트의 경우에도 사전 선수들이 다양한 기법/포지션을 연습해볼 수 있도록 충분한 경기장 높이 및 실제 경기코트

- 사이즈가 확보되고 있으며, 보조코트 벽면도 셔틀콕이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진한 색으로 덧붙여 놓음
- 바닥 역시 실제 경기 코트와 다를 바 없이 배드민턴 전용 코트가 설치되어 있어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기 전 워업장으로 활용하는 데에 문제될 사항이 없음
 -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이 러닝부터 스트레칭, 경기준비까지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가 배치되어 선수들이 워업장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운영
 - 펜싱경기장으로 활용될 때에도 이곳은 선수대기실(워업장)으로 활용된 바 있음



▲ 보조코트(워업장)

○ 중앙통제실

- 3층 경기코트 측면(선수 입장로 및 VIP 관람석 맞은편)에 중앙 통제실 설치
- 각 코트마다 음향, 조명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앙 통제실에 집약되어 이곳을 통해 제어됨

- 조명은 원래 경기장에 있는 조명을 활용하지 않고 별도의 조명을 설치하여 선수들의 시야를 확보함
- 실제 경기 시 외부 관중석이 보이지 않도록 조도가 조정되어 있어, 조명이 선수석에서는 바깥이 보이지 않고 눈이 시리지 않도록 맞춤형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함(각자의 코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조명 조정)
- 한국의 경우 경기 운영에 알맞은 조명이 설치된 체육관이 없는 현실로 내년도 국제경기 유치 운영 시 조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특히 유의하여 준비해야 할 것임



▲ 중앙통제실

○ 선수 및 관계자 휴게공간

- 보조코트 외에도 선수 및 관계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 앞서 방문한 보조코트와 거의 유사한 규모로 6명 정도가 넓게 앉을 수 있는 원형 테이블 19개 정도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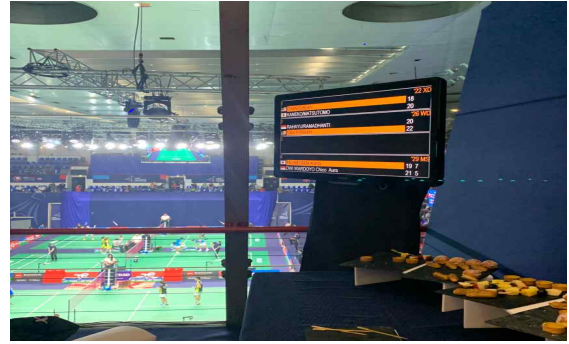
- 간단한 다과/식사(케이atering 준비공간 포함), 대회 현황을 모니터 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경기 및 점수판이 중계되고 있으며, 소지품을 놓을 수 있는 공간 및 옷걸이 구비, 한쪽에는 선수들/관계자들이 긴장을 풀 수 있도록 게임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음
- 선수나 관계자들의 시티투어 등의 문의와 연계도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함



▲ 선수 및 관계자 휴게공간

○ VIP 라운지

- 선수가 입장하는 쪽(경기코트 기준 측면) 3층에 VIP 라운지 마련
- 임원, 심판을 비롯하여 VIP Pack(티켓) 구매자들 대상 운영
- 간단한 케이atering(다과, 음료, 샴페인 등) 및 모니터를 설치하여 모든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함
- 경기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음
- Privilege offer 티켓 : VIP 좌석 및 라운지 이용권으로 요일에 따라 170유로~480유로까지 판매되고 있음



▲ VIP라운지 ▼라운지에서 본 경기장



○ 요넥스 브랜드 및 대표선수 홍보관

- VIP 라운지와 인접하여(가벽을 이용하여 공간 활용) 브랜드 상품 진열 및 요넥스 프랑스 대표 선수 및 국제 대표선수 홍보
- VIP 라운지 입장객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요넥스 브랜드 가방, 신발, 의류, 테니스 용품 등이 전시 및 판매되며, 라켓 수리(줄 교체 등) 코너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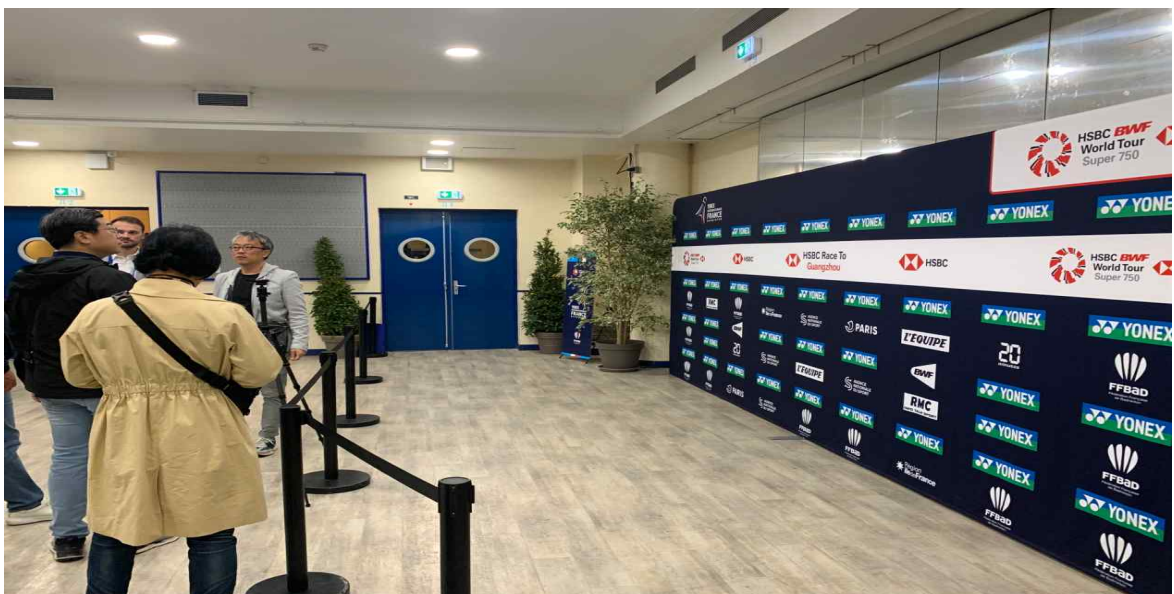
▲ 대표선수 홍보



▲ 요넥스 브랜드 홍보 및 라켓수리 등

○ Mixed 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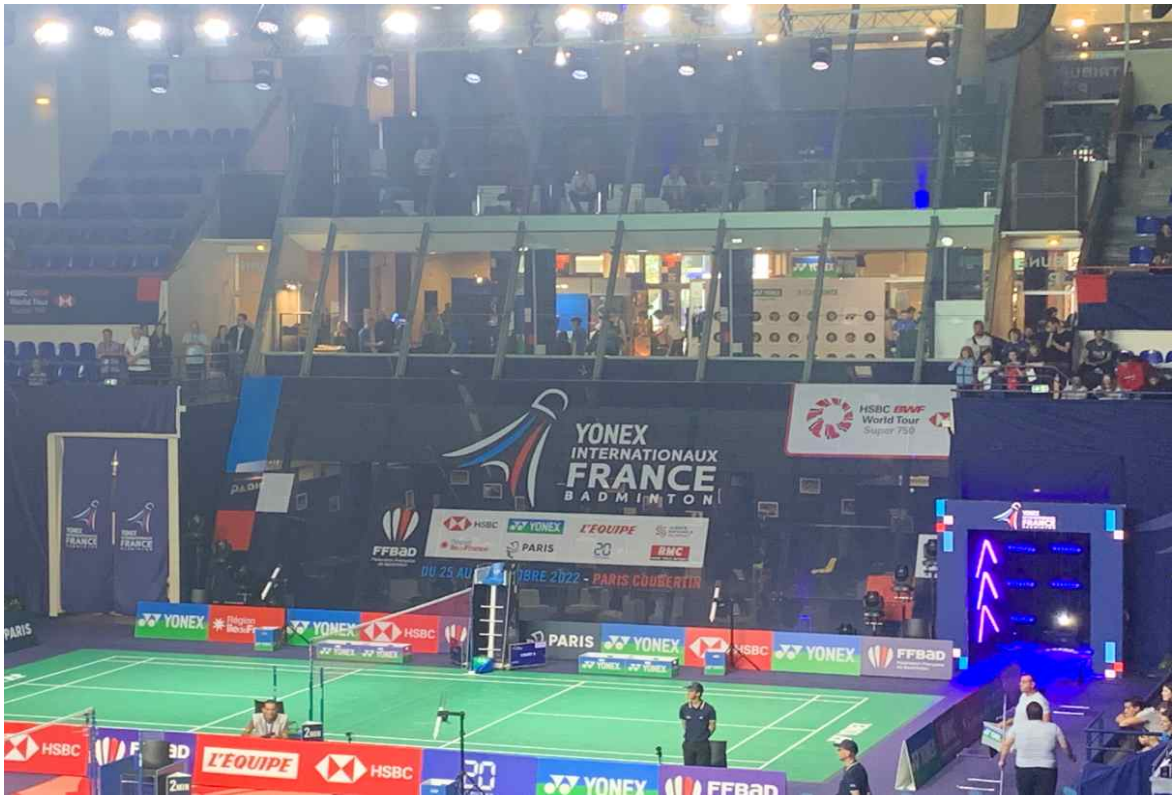
- 1층 측면은 선수 및 관계자 공간으로 경기가 바로 보일 수 있는 곳에 위치함
- 가벽 및 천 등을 활용하여 공간을 분할 활용하고 있었으며, 공간 뒤편으로는 MIXED Zone이 마련되어 있어 경기가 끝난 후 공식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연결됨



▲ 인터뷰 존

○ 대회 관계자 사무실

- 대회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 수행하는 현장 사무실 마련
- 글로벌 네트워크, 단체 등에서 연락이 왔을 경우 현장 사무실에서 연결 및 대응



선수 입/출입구, 1층 믹스드존 및 언론 관계자 공간, 2층 로비, 3층 VIP공간

○ 기타사항

- 프랑스에서 배드민턴의 인기
 - 학생들 기준으로 3위 안에 들어가는 스포츠이자 전 국민들 대상으로는 배드민턴이 인기 순위 5위 안에 들어가는 스포츠
 - 즉, 상당히 인기있는 종목으로, 프랑스 내에서는 어른만 100만명 정도 가입, 20만 개 정도의 작은 클럽 운영되고 있음
- 대회 첫날로 예선 1차전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3층을 제외한 1~2층 관람석이 대부분 차있는 상태(초등학생 단체관람도 많았음)

- 파리 시내 초등학교 12만명 중 배드민턴 인구 2,700명 정도,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스포츠로 파리 교육청과 시에서 지원하여 해당 대회에 현장학습을 지원함
- 운영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는지?
 - 국가 정책 지원금과 회원 협회기금으로 운영, 광고 수입은 거의 없는 편
- 대회 로고 관련 : 프랑스, 파리와 배드민턴을 상징하는 로고, 빨강-파랑-흰색을 사용한 셔틀콕
 - *파리시의 로고 : 빨-파-흰 돛단배



▲ 경기장 전체를 관련 로고 및 색상을 활용하여 디자인

- 생활체육 강국 프랑스 : 엘리트 체육 중심인 우리나라와 달리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그 중에서 전문 체육선수가 길러지는 시스템
- 2023 세계 시니어 배드민턴선수권대회와 2022 파리 오픈 대회 규모 비교
 - 2022 요넥스 프랑스 배드민턴오픈 선수권대회는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다음으로 3번째로 큰 대회이며, 내년

전주에서 열릴 세계시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는 현역 선수가 아닌, 前선수층 포함 동호인 대회 중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대회임.

- 요넥스 파리 오픈 대회가 4개의 코트를 사용한 반면 내년 전주 대회는 12개 코트가 운영될 예정으로 규모상으로는 더 크게 운영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 대회장까지의 접근성 확보
 - 일반버스와 작은 밴 2가지의 셔틀 운행
 - 대회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는 40분에 1대
 - (일반버스) 공항, 주요역사, 도심권 운행
 - (작은 밴) 심판, 관계자, VIP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동수단으로 활용



▲ 홍보활동 후 단체사진(한국 국가대표단 감독-코치진과 함께)

□ 시사점

- 내년도 대회를 유치하여 준비해야 하는 전주시 입장에서 시설 및 운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며 어떠한 고민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벤치마킹
- 조도, 워업장, VIP룸 등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며,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도 필요할 것
- 화산체육관 및 신축 체육시설의 경우 쿠베르탱 경기장과 같이 가변형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및 설계 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설 구성할 필요
- 체육관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각종 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
- 월드시니어배드민턴대회 로고 등을 활용한 기념품 제작
- 쿠베르탱 경기장이 오래된 건물이며, 원래 핸드볼 팀 경기장임에도 불구하고, 요넥스 프랑스 오픈 대회 기간 동안에는 완벽하게 요넥스 배드민턴 경기장처럼 보이는 것과 같이 경기가 열릴 화산체육관도 로고와 상징 색상 등을 활용한 경기장 외관 및 내부 인테리어에도 신경써야 할 것
- 환경을 생각한 대회 추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 요넥스 프랑스 오픈에서는 오래 전부터 환경친화적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선언을 해왔음



스포츠 특화도시 대비 및 스포츠를 통한 관광 벤치마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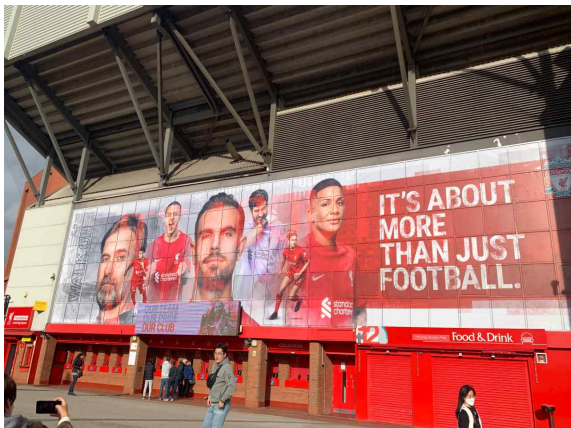
- [영국 리버풀] 안필드 스타디움
- [영국 런던] Wimbleton 테니스 경기장

【안필드 스타디움】

□ 주요 견학 내용

○ 안필드 스타디움

-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팀 중 하나인 리버풀 FC의 홈구장으로 수많은 축구 팬이 찾는 명소
- 5만여 명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경기 중에는 수많은 팬들이 경기를 직관하기 위해 방문하며, 경기가 없는 기간에는 경기장 곳곳을 살펴볼 수 있는 스타디움 투어로 남녀노소 수많은 축구 팬들이 찾고 있는 관광지이기도 함



안필드 스타디움

○ 안필드 스타디움 투어

- 스타디움 투어를 통해 경기장 내부를 둘러볼 수 있음
- 현장구매도 가능하지만 T.O.가 있는 시간대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 경기 전날과 당일은 관람 장소의 제약이 있음
- 투어는 크게 4가지 코스로 나뉨
 - ① The LFC Stadium Tour
 - : 일반적 스타디움 투어, 오디오 가이드로 진행
 - ② The LFC Matchday Stadium Tour
 - : 홈경기가 있는 날의 투어, 시간 제약과 라커룸 컨퍼런스룸 제약
 - ③ Legend Q&A
 - : 스타디움 투어 포함, 리버풀 레전드와 대화, 사진 촬영, 사인까지 가능, 날짜 제약 있음
 - ④ Mighty Red Special Appearances on The LFC Stadium Tour
 - : 리버풀 마스코트 마이티 레드와 함께하는 투어, 날짜 제약 있음



스타디움 투어

- 역대 리버풀 FC를 빛낸 감독 Zone : 각 감독마다 설명과 더불어 부가적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조성
- 현 감독이 안필드 구장에 관한 간략 설명하는 영상
- 창문을 통해 안필드 전경을 볼 수 있도록 조성해놓음
- 안필드 구장에 대한 소개 영상 이후 안필드 구장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안필드 구장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코너 마련
- VIP룸 : VIP들이 관전할 수 있는 룸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 컨퍼런스 룸 및 프레스 룸 : 선수와 감독들이 인터뷰 하는 장소로 담당 직원이 상주하여 선수들처럼 인터뷰석에서 사진을 찍어 기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개인 인터뷰 룸 : 실물 크기의 선수 입간판 설치되어 있어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함
- 라커룸 : 스타디움 투어의 꽃으로 불림. 관광객들은 좋아하는 선수의 유니폼 앞에서 사진을 찍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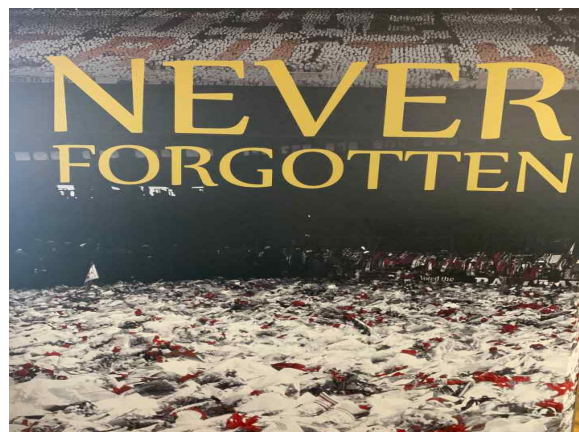
개인 인터뷰룸 및 라커룸 투어

- 선수들이 입장하는 경기장 입구를 통해 입장, 필드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실제 구장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출구를 통해 빠져나가는 것으로 경기장 투어는 마무리 되는 코스임
- 경기장 밖으로 빠져나올 때, 한 번에 사람들이 몰려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RFID 방식을 활용한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도록 되어있음

○ 안필드 스타디움 - 뮤지엄 투어

- 경기장 투어 외에도 바로 옆에 박물관이 마련되어 있어 박물관 관람이 가능하며, 관련 역사 및 리버풀 챔스 우승컵 등이 소장되어 있음
- 힐즈버러 참사로 인한 리버풀 서포터즈 96명을 기리기 위한 메모리얼 모자이크 및 힐즈버러 참사에 대해서도 구간을 할애하여 소개
 - * 힐즈버러 참사 : 1989년 리버풀FC VS 노팅엄 포리스트 FC 경기가 있었던 힐즈버러 경기장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입석 좌석에 과도한 리버풀 서포터즈가 몰려들어 총 96명이 압사한 사건. 영국의 모든 스타디움이 입석을 없애고 좌석으로 변경되는 계기가 되었다.



안필드 뮤지엄

- 리버풀의 유명했던 수문장 및 스티블 제라드(리버풀 유소년 팀에서 시작하여 성인 팀에서 활동하기까지 17년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함) 기념관 마련
- 챔스 우승 트로피 “빅 이어” 등 잉글랜드 팀 중에서 유일하게 영구소장을 하고 있어 뮤지엄에서 공개



우승트로피 및 유명 선수들 유니폼 등 전시

○ 기념품샵

- 기념품 샵도 별도의 건물로 마련되어 있으며, 유아~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축구복 및 용품을 비롯하여 머그컵, 자석, 열쇠고리 등 여러 가지로 활용된 기념품 판매

○ 안필드 스타디움을 찾는 관광객

- 아이들 방학이 시작되면 하루 1천명 정도가 스타디움 투어를 체험하러 옴
- 경기 시에는 한 경기 당 53,000석 기준, 경기당 매출 400만 파운드 정도임. 즉 한 번 경기할 때마다 65억으로 한 달 기준 대략 4천억의 매출이 안필드 스타디움에서만 발생
-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 경기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5만 명 정도가 모이는데 원정 팬들의 경우 인근 숙소 및 식당 등 이용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경제유발효과 발생

- 홈팬들의 경우 끝나고 집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 후 펍 같은 곳에서 경기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며, 영국은 펍에서 함께 경기를 관람하는 문화가 많이 정착되어 있어 경기가 있을 경우 경기장 인근 펍이 성황을 이룸
- 경기가 있는 경우 인근 펍 등에서 주문 시간을 연장하여 경기 상황에 따라 12시까지 주문을 받기도 하는 등, 지역 상인들의 매출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음

○ 구장관리 및 운영 방식

- 구장은 회사에서 관리하며, 특히 잔디는 히팅시트 등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연중 온도 유지 등에 힘쓰고 있음
- 건물은 시에서 임차를 해서 구단이 사용하고 있으며, 유지보수를 위한 부분도 지자체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투어 도중에도 수많은 직원들이 곳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노인 인력도 많음) 모든 직원들은 전부 리버풀 소속으로, 구단 소속의 교육을 받은 해설사로 활동하며,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자는 따로 없음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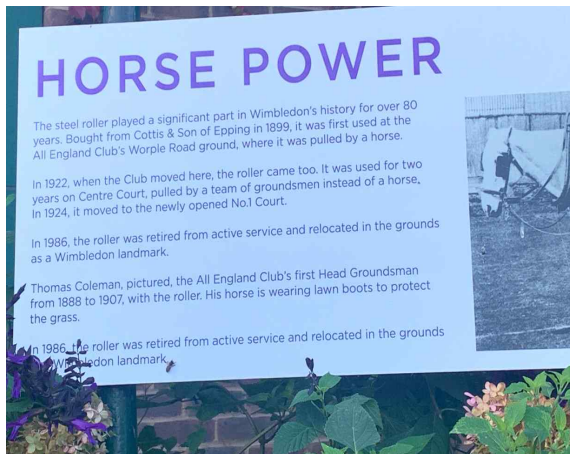
- 안필드스타디움은 리버풀FC의 홈구장으로 경기 개최 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스포츠관광지임
- 지자체의 지원은 최소화, 구장에서 경기장 컨디션을 최상급으로 유지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전주시에 연고를 둔,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은 아시아 최고의 축구단으로 전주시의 문화관광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
- 전주시와 KCC, 전북현대모터스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공헌 방법 모색 필요

【윌블던 테니스 경기장】

□ 주요 견학 내용

○ 윌블던 테니스 경기장의 명성

- 세계 최고의 역사를 지닌 테니스대회가 개최되는 경기장으로 경기가 있는 동안에는 전 세계에서 팬들과 언론사 등 엄청난 인구가 방문하며,
- 평상시에도 테니스 팬들의 성지로 박물관 및 경기장 투어를 하기 위한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룸



선수 및 관계자 휴게공간

○ 윌블던의 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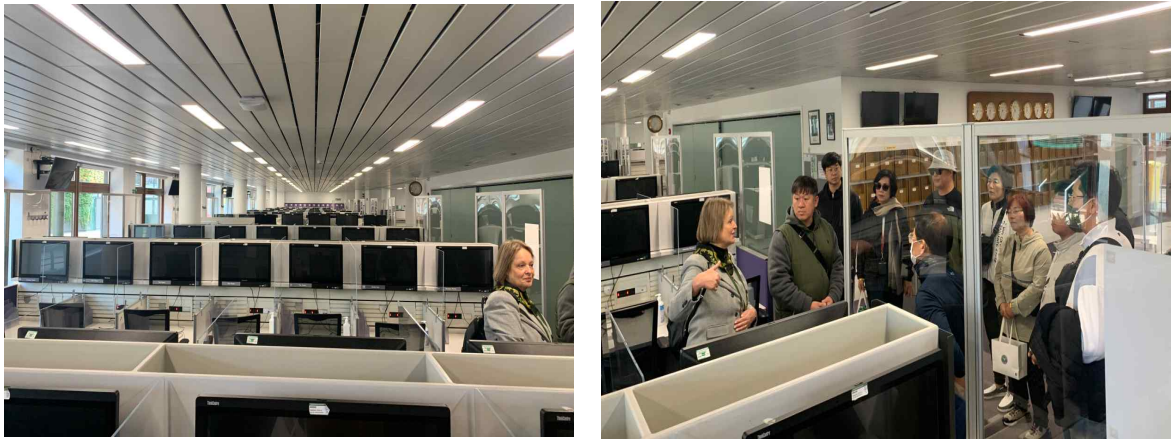
- 1877년 첫 번째 경기가 이 곳에서 열림.
- 옛날에는 잔디를 관리할 때 말이 롤러를 끌어 잔디를 눌러 줬었는데, 테니스 경기가 열렸던 이유는 그 롤러가 고장 나서 롤러 수리를 하는데 10파운드(1600원)가 필요했기 때문. 그 수리비를 벌기 위해 처음 열린 것이 윌블던의 시초
- 윌블던의 시초가 된 당시 고장났던 롤러 역시 하나의 상징으로 전시되어 있음

○ 경기장 규모

- 경기장은 준결승과 결승만 열리는 센터코트를 포함, 총 20개의 연습장이 있음.
- 연습장 규모는 2번 코트 약 4천 석, 4번 코트 약 2천 석, 1번 코트 12,345석, 센터코트 약 15,000석으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함

○ 미디어 센터

- 전 세계에서 워블던 경기가 열릴 때, 700명 정도의 기자들 초대되어 오며, 기자들이 일하는 미디어센터는 350명의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거나 경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대회가 있을 때에는 미디어센터가 24시간 운영되며, 현재 새로운 미디어 센터가 지어지고 있음(내년 완공 예정)



미디어센터

○ 인터뷰 규정

- 선수 당 15분이 할애되어 있는데, 7분 30초는 영어로, 7분 30초는 선수 자국 언어로 하도록 규정됨
- 단, 조코비치는 7개 언어 하는 선수 유일하게 20분 인터뷰를 하고 있음



인터뷰 존

○ 테니스 종사 인구

- 대회기간 동안에는 6천 명의 주민(하루, 자원봉사 포함)들이 테니스 대회와 관련된 일을 함
- 상시적으로는 160여 명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음

○ 윌블던의 상징

- 보라색, 녹색, 흰색
- 윌블던의 모든 디자인 패턴은 세 가지 색으로 이루어짐
- 심지어 윌블던에 심는 꽃의 색깔도 보라색으로 세 가지 색의 조합은 윌블던을 상징하도록 각인시키는 효과
- 곳곳에 잔디와 담쟁이덩굴, 아름다운 보라색 꽃으로 많은 사람들은 윌블던이 주는 신비하고 아름다운 분위기에 이끌려 대회장을 방문하기도 한다고 함
- 윌블던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 역시 복장 규정은 모두 흰색만을 착용하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데, 테니스화 바닥이 흰색이 아닌 형광색이어서 갈아신고 경기에 임해야 했던 경우도 있을 정도로 엄격한 규율이 적용됨



윌블던의 상징을 활용한 각종 기념품

○ 가장 열심히 일하는 ‘레거시 팀’

- 윌블던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 레거시 팀이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무엇이든 ‘유산화’ 하는 작업 추진
- 예를 들면 2010년도에 18번 코트에서 11시간 5분 동안 게임을 했던 기록이 있는데, 이를 단순 기록적인 경기로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18번 코트 앞에 현판을 붙이고 사람들이 기념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한 곳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 관광자원화 하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 중



레거시 팀- 유산화 작업을 통한 관광자원화

○ Wimbleton의 ‘전통’

- 우승자는 전통적으로 경기장에서 나와서 복도를 지나 흰색 발코니로 나와 우승 트로피를 들고 세레모니를 함
- 항상 전년도 우승자가 센터코트에서 첫 번째 경기를 시작해야 올 해 대회가 시작되는 전통이 있음
- 모든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흰색’ 복장을(코치도 포함), 스태프들은 ‘녹색’ 복장을 착용
 - * 현재는 모자에서 손목 밴드, 양말, 신발, 속옷까지 모두 흰색으로 갖추도록 요구되고 있으며, 경기 뿐 아니라 대회 전 연습에서도 이와 같은 룰이 적용됨
- Wimbleton 경기가 열리는 동안 관람객들은 지역에서 재배된 신선한 딸기를 크림에 찍어 먹으며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전통
- 100주년 기념으로 그동안 경기 우승자의 서명을 받은 포토존을 설치해 놓았으며, 역사와 전통에 대해 설명해 놓은 판넬이 경기장 곳곳에 있음



Wimbleton의 역사(경기장 통로) 및 또하나의 상징인 딸기 모형(박물관)

○ 워블던 투어 가이드 ‘블루뱃지’

- 여기에서 해설을 하려고 하면 워블던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정부에서 블루뱃지를 취득해야 함
- 예를 들면 투어가이드 자격증 같은 것으로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관리
- 영국 국가공인가이드를 칭하는 블루뱃지 가이드는 2년간의 강도 높은 수업과 실습, 자격시험을 통과한 가이드로 영국 내 가이드 중 최고라 자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가이드이며, 현재 총 700여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음.
- 영국지역정부와 영국관광청에서 공식인증을 받은 전문 투어 가이드로 가슴에 지정된 파란색 뱃지를 달고 투어를 진행하여 블루뱃지 투어가이드라고 불림
- 영어로만 뽑는 것이 아니라 언어별로 선발하여 다양한 관광객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음
- 워블던 가이드 투어 역시 내부 가이드 투어는 인증된 투어 가이드에게만 자격을 허용하고 있어서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하면 블루뱃지를 취득한 해설사가 연결되는 구조로, 워블던 소속 가이드가 아닌 영국 런던의 스포츠해설 가이드이기 때문에 비용은 워블던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해설사의 블루뱃지 및 해설사 설명 모습

○ ‘멤버십’ 워블던을 유지하는 사람들

- 워블던 클럽을 운영 유지하는 사람들은 약 500여 명의 멤버
- 큰 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프라이빗 멤버십이며, 조건은 반드시 워블던 근처에 살아야 함
- 경기장 내에 선수들 티 룸, 선수들이 이용하는 라운지(3층) 등이 있는데, 이 500명의 멤버들은 2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대회 기간 동안 최대한 선수들과 가깝게 차도 한 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 또한 이 500명의 클럽 멤버들은 센터코트 경기 시, 201번 게이트 및 301번 게이트로 항상 초대받는 특혜가 주어짐

○ 잔디코트 관리

- 워블던은 테니스 그랜드슬램 대회 중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테니스 대회이자, 유일하게 잔디코트를 사용하는 대회로 잔디코트 관리를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음
- 경기 시에는 시험 1개월 전부터 8mm로 잔디 손질(평상시 10mm)
- 잔디 높이에 따라 공이 바닥에서 바운스 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8mm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조건임
- 게임이 끝나면 내년도 대회를 위해 잔디를 다 걷어내고 다시 깔음(10월)
- 동그란 제설기처럼 돌아가는 기계가 운영 중이었는데, 이는 잔디에 박테리아들이 살지 못하도록 바람을 불어주는 기계
- 대회 중에는 매일 정비원이 잔디 색과 밀도, 토양, 습도 등을 확인하며, 기상 전문가와 면밀하게 연락을 취해 최신 일기 예보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조정함

- 비가 오면 커버를 씌워 습도 조절, 전용 진공청소기로 먼지 제거, 잔디 깎기 등 평상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잔디 손질에 종사하고 있음

○ 센터코트

- 센터코트에서는 준결승과 결승이 열림
- 선수들이 나오는 2개의 문이 있는데, 100년동안 전통이 깨지지 않고 항상 선수들이 2개의 문으로 나옴
- 대회가 열릴 때마다 4월이 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배우, 정치인 등 초대장을 보내고, 그 중에서도 선정하여 관람하도록 함.
- 경기장 뒤쪽에 있는 부분이 중계방송석으로 한 칸씩 방송사들이 가지고 있는데, BBC는 가장 좋은 자리 코너 쪽에 중계석을 가지고 있음
- 2022년도에는 전년도 우승자 조코비치가 한국선수 권순우와 경기를 치렀음
- 센터코트 규모는 1만5천석으로 경기 시 매진을 기록하고 있으며, 500명의 클럽 멤버들은 201번 게이트, 301번 게이트로 항상 초대받음
- 2009년 잦은 우천으로 인한 경기 지연을 막기 위해 센터코트에 개폐식 지붕 설치 - 7초 만에 닫히는 구조

○ 티켓판매 및 기타 운영 등

- 사람들이 티켓을 두 장 사면 복권처럼 추첨해서 나중에 센터코트 경기를 볼 수 있는 티켓을 줌
- 티켓은 온라인으로 주로 판매되며, 하루 500장 정도의 티켓은 줄서서 살 수 있도록 판매분을 남겨놓음

- 경기가 열리는 기간 2~3주 동안은 대회에 맞춰 버스노선 역시 임시로 바뀌는데, 테니스장에서 가까운 사우스필즈와 워블던 역 간 테니스대회 특별버스가 항상 대기하여 관중들을 테니스장까지 데려다 줌
- 거리의 1/3이 유니폼을 입은 자원봉사자와 안전요원일 정도로 많은 인력을 배치하여 대회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함

○ 스폰서 및 공식 테니스 공

-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스포츠 답게 테니스 경기 중에는 많은 스폰서 회사들의 광고판이 등장하지만 워블던의 경우 스폰서를 노출하지 않고, 광고판 없는 클린한 경기장을 유지하고 있음
- 롤렉스 : 공식 시계 후원사로 기업 로고 노출이 없는 워블던에서도 경기장 군데군데 시계가 붙어있음.
- 에비앙 : 공식 물 브랜드
- 공식 테니스공은 슬레진저로부터 공급받음
- 워블던과 슬레진저 관계는 무려 19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워블던과 슬레진저의 관계가 깨지지 않음
- 슬레진저 테니스공은 경기가 열리는 2주 동안 약 5만 4천여 개가 사용되고 있음

○ 대회 기간동안 지역 주민들의 부수입 ‘렌트’

- 동네에 호텔이 많지 않아서 조코비치같이 유명 테니스 인사 및 관계자들은 대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큰 집을 가족들을 위해 3만불(약5천만원) 정도에 렌트함
- 워블던 경기장 인근 아파트는 미디어에서 주로 임대(약 2주 간) 하는데 경기가 보이고 전경을 찍기 유리해서임

- 이처럼 워블던 동네 사람들은 워블던 경기가 열리는 동안 약 2주 간 에어비앤비 형태로 집을 빌려주며, 지역민들에게 또 하나의 수입원으로 자리잡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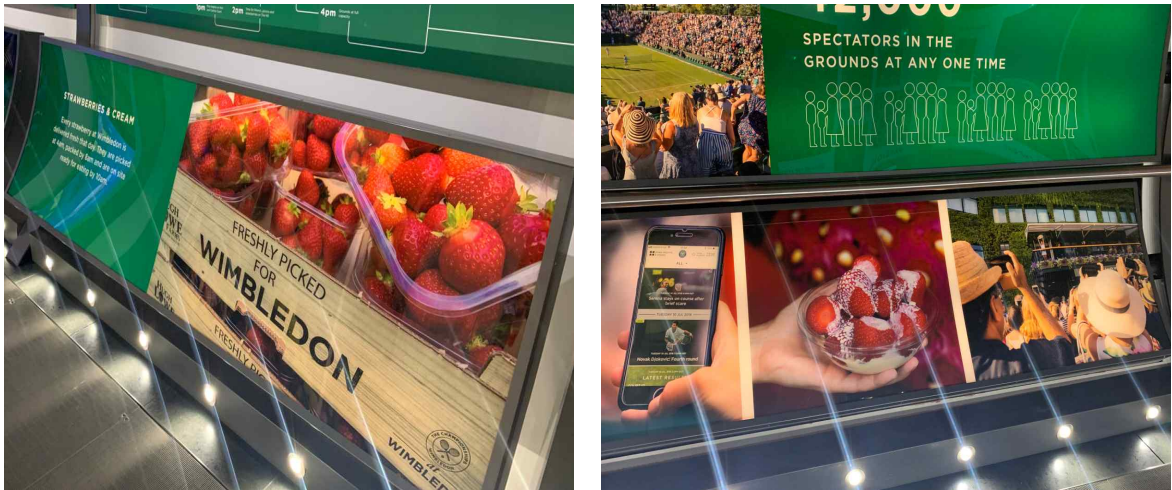
○ 불 보이와 불 걸

- 불보이, 불걸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반드시 워블던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어야만 함
- 매 년 1,200명 정도가 지원하며, 그 중 250명을 선발하는데, 14~18세만 할 수 있고 돈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이나 이력서에 쓸 수 있는 최고의 경력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치열함
- 선발이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보이/불걸을 할 수 있는 교육을 6개월 동안 매주 받아야 할 수 있음

○ 워블던의 또 하나의 상징이자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 크림을 얹은 딸기와 핍스를 먹는 것이 또 하나의 전통
- 이 시기를 딸기와 크림 시즌이라고 칭하기도 할 정도로 많은 딸기와 크림이 소비되는데, 워블던 경기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약 23톤의 딸기와 7천 리터의 크림이 소비된다고 함
- 또한 이 때 소비되는 딸기는 인근 지역에서 매일 새벽 6시에 공수되는 신선한 딸기로 주변 Kent 지역민들에게 주요한 수입원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연계되고 있음
- 테니스 팬이 아니더라도 영국 사람들 및 관광객들은 워블던이 열리는 올잉글랜드클럽(워블던 경기장)을 찾는데, 헨먼힐(머리마운트)로 불리는 장소에서 돛자리를 깔고 피크닉 분위기를 내며 대형 스크린을 통해 경기를 관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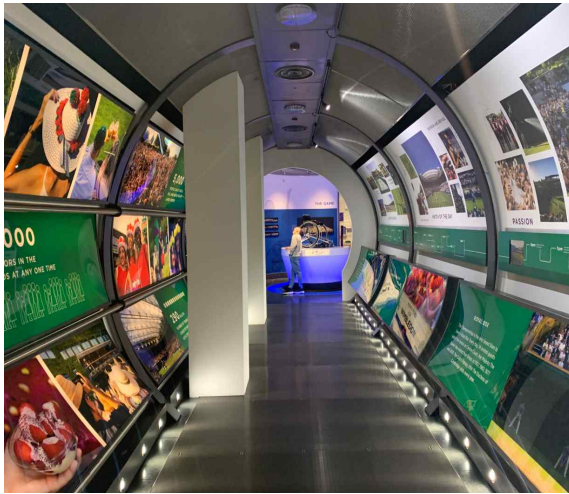
- 꼭 경기 티켓이 없더라도 경기장 내 스크린을 통해 딸기와 크림을 먹으며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부수입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음



대회 기간동안 소비되는 딸기(뮤지엄)

○ 윌블던 경기장 및 뮤지엄 관광

- 윌블던 경기장은 블루벳지 해설사 투어와 일반 뮤지엄 투어만 할 수 있는 2 트랙으로 진행되는데, 투어의 경우 1회 투어당 30명 이상 입장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구조로 하루 6회 기준 180명, 연중무휴로 운영됨.
- 박물관은 인원제한 없이 연중무휴 운영으로 경기장에 방문하는 70%가 해외 방문객임
- 박물관 역시 윌블던 및 테니스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비해놓았으며, 실제 선수들이 쓰던 공, 의류, 라켓 및 여러 에피소드 등을 전시로 구성해놓아 테니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함



윌블던 경기장 뮤지엄 - 전시기법

○ 환경친화적 테니스대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 2030년까지 환경친화적 테니스대회로 거듭나기 위한 목표 수립하였음
- 윌블던의 상징인 잔디코트는 친환경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해충을 잡기 위해 살충제를 최소화하고, 윌블던 내 매 조련사를 두어 매를 사용하며, 새로운 증기식 잔디관리 공정을 도입하여 잔디에 주는 물의 양을 줄였음
-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장 곳곳에 버그 호텔 (bug hotel)을 설치하고, 경기 관람을 위해 줄을 선 팬들이

이를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듦

- 야간경기를 위해서는 LED 조명과 재생 가능한 원료로 생산한 전기를 100% 사용하며, 대회 운영을 위한 총 150대의 운송 차량에 약 20대의 전기 자동차를 도입했음
- 새로 지은 한 동의 건물은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체 및 이동이 가능한 방식으로 건설하고, 재활용 목재 프레임, 태양광 조명, 업사이클 가구 등을 넣었음
- 워블던 내 레스토랑과 카페에는 저탄소 및 비건 메뉴를 늘리고, 워블던의 상징으로도 유명한 딸기 크림 메뉴는 지역의 현지 농장에서 조달
- 식당 내 조리대는 선수들이 쓰고 난 뒤에 버리는 테니스 라켓 스트링을 재활용해서 만드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시사점

- 워블던은 런던이라는 대도시의 한 구석에 위치한 동네지만 워블던 테니스대회가 열리는 2주 동안은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브랜딩화’에 성공
- 이 성공은 오랜 역사와 더불어 유형 무형의 전통을 만들어내고 지속시켜오는 데에 있다고도 할 수 있음
- 자연스럽게 역사와 지역 특성을 가미하여 전통을 만들어낸 좋은 사례로, 블던 테니스 대회 중 크림을 듬뿍 올린 딸기를 먹는 것도 하나의 재미이자 테니스 팬이든 아니든 하나의 의식이자 전통이 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좋은 사례임

- 박물관의 경우 워블던 테니스 경기장 및 테니스의 역사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기법을 활용하고, 실제 선수들의 소지품 및 이야기 등을 활용하여 전시를 구성함으로써 많은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박물관을 보기 위해 경기장에 들르는 관광객 수요도 많은 상황임. 우리 전주시 역시 전북 현대, 전주 KCC 및 배드민턴과 관련한 국가대표급 선수를 많이 배출한 고장으로로서 다양한 이야기를 수집하여 뮤지엄을 만들어 경기장 투어와 연계함으로써 관광 수요층을 확대해 나갈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워블던에서도 역시 환경친화적인 테니스대회를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일회용품 덜쓰기와 같은 차원을 넘어 전주시에서도 체육관 운영 및 각종 대회 유치 시 환경부문에 신경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 특히 전력 활용 부분에 있어서 수소연료전지 등을 시범적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워블던은 흰색, 보라, 녹색을 상징적인 색깔로 사용하여 전체적인 디자인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각종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기념품 수요 역시 무시할 수 없으므로 상징적인 관광 기념품 제작 및 판매 역시 고민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전주에 오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도 있음.
- 지역 농산품 또는 특산품 등과 연계방안 모색이 필요함
- 전주시의 경우에도 스포츠 특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스포츠 종목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함

지역축제 활성화 및 브랜드화 방안 모색 -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 방문개요

- 일 시 : 2022. 10. 28.(금) 14:30
- 장 소 : 에든버러 프린지 소사이어티 사무실
- 인터뷰대상자 : Chris(프린지소사이어티-예술가 지원 담당)
Allen(행사 장소 및 등록, 관리 담당)
- 기관개요
 - 에든버러 프린지 소사이어티 : 에든버러 프린지 축제를 운영하기 위한 단체로 행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 1947년 에든버러 국제페스티벌이 시작될 당시 초청받지 못한 공연팀들이 자생적으로 공연을 하면서부터 시작됨
- 프린지라는 뜻이 ‘주변’ 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에든버러페스티벌과 달리 자유 참가 형식의 공연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부대 축제라 할 수 있음
- 2022년도 기준 160여 개 작품에 참여 예술가는 2,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원 주관 코리안쇼케이스 7개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음

□ 에든버러 프린지 소사이어티 면담내용

【프린지소사이어티의 역할】

- 프린지소사이어티의 특징
 - 프린지 소사이어티와 프린지페스티벌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프린지페스티벌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축제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특정 아티스트를 선정하거나 큐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모두에게 열린 방식으로 진행
- 프린지소사이어티에서 하는 일은?
 - 아티스트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공연이나 무대를 만드는 것을 지원, 관객을 초대할 수 있도록 티켓 세일즈를 도와 주는 등 행정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협동조합 또는 연합으로 이해할 필요
 - 가장 먼저 관객들이 페스티벌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지를 알리는 역할, 아티스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공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 장소나 행정적 지원 등에 역할이 한정되는지?

- 프린지 소사이어티에 등록을 하고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아티스트들이 미리 장소를 설정해 놓아야 함.
- 독립적으로 공연하기 위해서는 장소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어떠한 장소는 매우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공간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크고 객석도 구비되어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박스오피스와 수익을 어느 정도 분배해야 된다는지 장소마다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일단 장소를 구해서 오면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서포트를 한다고 보면 됨
- 행정적 지원이 주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프린지소사이어티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공연들을 관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이러한 공연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역할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음
- 전체적인 행사를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프린지소사이어티



관계자 간담회

【축제 운영 관련】

○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연을 할 수 없는지?

- 할 수 있음. 모든 아티스트들이 등록하지 않아도 소규모로 공연하는 단체도 있음.
- 프린지소사이어티는 프린지페스티벌 그 자체가 아니라 한 달 동안 프린지페스티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프로그램북에 등재가 되려면 등록을 해야겠지만 밖에서 일어나는 거리공연처럼 (등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음.

○ 등록에 따른 베네핏

- 등록을 하면 프린지소사이어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프로그램북에 등재되어 광고가 되는 효과, 미디어와 연결하거나 공연 후 리뷰가 써질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등

○ 개별 공연은 장소 선정부터 공연 운영, 홍보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는 참여자(아티스트)의 몫

○ 전체적인 행사를 주도하는 것이 프린지소사이어티

- 하지만 프린지페스티벌의 성격 상 장소마다 행사 장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큰 장소에서는 하루에 100개의 쇼가 올라가기도 하는데 당연히 Theater같은 곳이라고 하면 그곳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이고, Pub 같은 곳에서도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그럴 경우 그 직원들이 행정 역할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루즈하게 독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의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형태는 프린지소사이어티가 유일함

- 전체 에든버러 페스티벌을 총괄하는 감독이 있는 것이고, 그 아래에 여러 페스티벌이 있는 구조인지?
 -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서 파생된 페스티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의 경우 헤드 디렉터, 아티스트 디렉터도 있어서 거기에서 올리게 되는 공연을 모두 관리, 어떤 공연을 올릴 것인가도 결정하는 등 큐레이션 성격이 강하다면 프린지페스티벌은 그에 반하는 성격.
 - 민(民)이 주도하는, 독자적인 아티스트들이 자신만의 공연을 펼치는 것을 주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헤드 디렉터는 존재하지 않음
 - 프린지소사이어티의 헤드(executive)는 있지만 헤드디렉터가 있어서 어떤 아티스트들이 어떤 공연을 올릴지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

- 조직위원회가 바뀔 때마다 축제 분위기가 바뀔것이라 생각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한 팀으로 계속 운영.
 - 해마다 위원회가 바뀌고 이러한 성격은 아님

- 차량통제 등을 다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없는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지?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 지역 주민들 관련해서는 프린지소사이어티에서도 관리를 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에든버러에서 벌어지는 축제가 총 12개 정도 있는데 그 전체 총괄은 Festival of Edinburgh 라는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차량통제, 장소통제 등 관여함.
 - 행사 장소마다 자기들이 공연 올릴 때 교통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성격이 강함

- 폐기물 처리 등도 어떠한 한 단체가 관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로열마일 거리를 시의회 승인을 받아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면(공연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준다고 하면) 쓰레기, 안전사고 등에 대해 프린지 소사이어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지만,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듯 장소마다 독자적 관리가 우선.



【축제 예산 관련】

○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 프린지소사이어티에서 펀드를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들이 자신들의 예산을 들고 와서 활동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지원. 따라서 예산이 따로 세워져있지는 않음

○ 축제 관련한 재원(예산)이 에든버러 시에서 지원되는지, 스폰서가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지?

- 지역 정부에서 소규모의 지원 예산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프린지 페스티벌 전체 예산을 커버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프린지 페스티벌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드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사실상 없음

○ 상근직원의 급여 등

- 전체 티켓 세일즈의 4%를 수익으로 가져감
- 행사의 성취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균을 이야기할 수 없음
- 티켓세일즈의 4% 수익과 더불어 행사등록비가 300파운드부터 시작하는데 그 행사등록비에서도 직원 수익(급여)이 나옴
- 참고로 아티스트가 벌어가는 수익은 아티스트 성격마다 다름

○ 스폰서도 많은지?

- 행사 축제 기간이 아닐 때 프린지소사이어티 30명 정도로 운영되어 펀드가 크게 요구되지는 않음. 물론 축제 기간에는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큰 돈이 필요하기 마련이지만 사실상 자선단체처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스폰서가(기업 등) 많이 붙어서 큰 돈을 받고 진행되고 있지는 않음

○ 티켓의 4%에 대한 수익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 올해 220만장 티켓 팔림. 4%가 얼마라고 하기보다는 티켓마다 10~15파운드의 가격.

○ 마케팅을 한다고 했는데 일반적 책자 말고 주력 사이트가 있는지?

- 일어나고 있는 행사 각각을 프린지소사이어티에서 홍보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님.

- 지금 에든버러에서 프린지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는 전체적 홍보를 맡아서 하는 것이며, 기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등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주로 함. 각각의 쇼는 장소에서 직접 홍보를 하거나 아티스트가 직접 홍보를 하는데, 전체적인 프린지페스티벌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는 프린지페스티벌에서 함.

【기타】

- 민간 영역에서 이렇게 많이 참여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은?
 - 일단 프린지 페스티벌이 75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들의 참여를 특별히 독려하지 않아도 다들 참여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있음.
 - 다만 강조하고 싶은 점은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제 막 예술 활동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그라운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프린지에서 데뷔를 하고 초창기 커리어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아티스트로서의 행보를 이어나가는 성공사례가 많이 있음
 - 프린지소사이어티에서 관객 대상이 아닌 아티스트-바이어 대상 매칭 제공, 예를 들어 큰 발레공연을 올리고 싶은 바이어나 프로듀서가 오게 되면 프린지소사이어티에 등록 되어 발레공연을 올리는 발레단과 연결해주는 역할
- 팬데믹 때에도 계속 진행이 되었는지?
 - 2020년에는 진행되지 못했고, 2021년에는 소규모 진행, 2022년 다시 복귀되었지만 여전히 여파가 있음
- 스타가 된 대표적 사례는?
 - 몬디파이톤이라는 코미디 그룹도 프린지에서 데뷔하여 세계

- 적으로 투어를 하는 그룹으로 성장했고, 엠마 톰슨이라는 배우도 프린지 데뷔 커리어를 가지고 있음. 뮤지컬 식스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올린 공연이었는데 프로듀서의 눈에 띄어 브로드웨이까지 간 사례임. 또한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유명한 뮤지컬인 해밀튼 제작자의 경우 매년 프린지에 와서 어떤 작품이 크게 될 작품인지 항상 보러 옴.
- 프린지소사이어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아티스트가 준비가 되어있는가, 지금이 시기상 이 아티스트가 이 무대를 프린지페스티벌에 올리기에 적합한가 등에 대해 격려 및 조언 등을 많이 해주고 있음.



▲ 출장 당시 프린지페스티벌 기간이 아님에도 거리공연이 진행되며, 많은 관객들이 거리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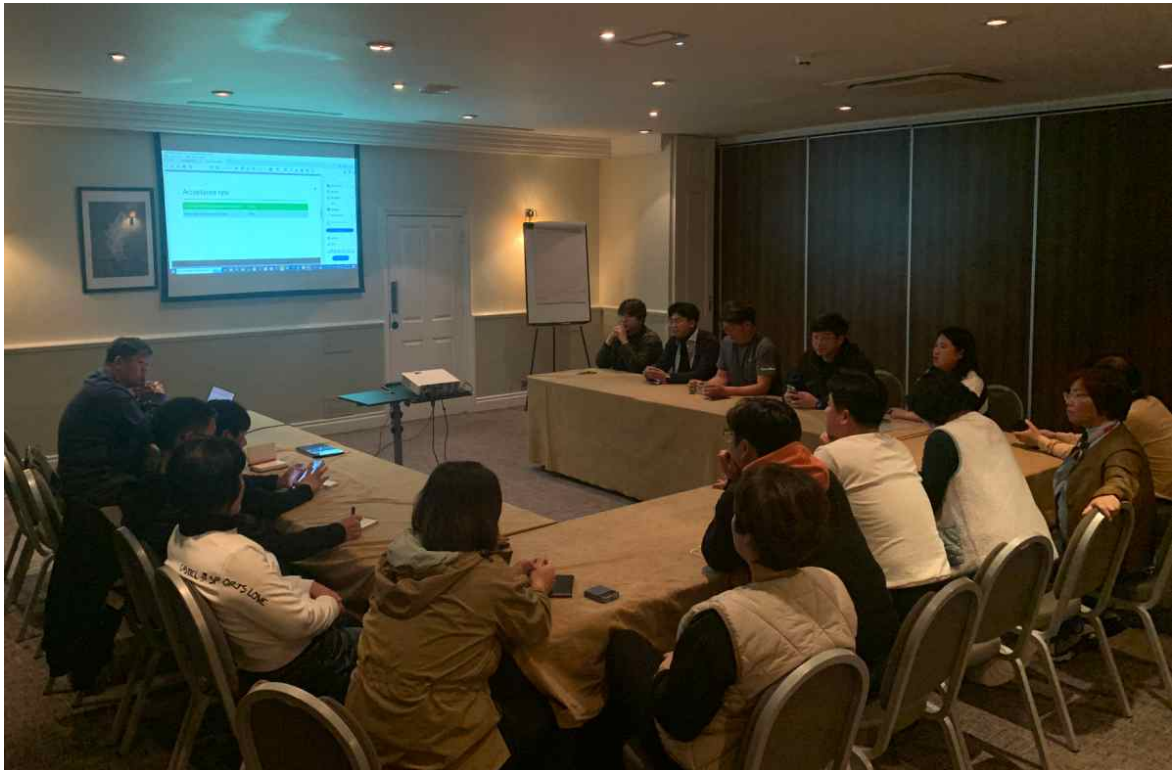
□ 시사점

-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 경우 저작권법 등의 문제로 거리공연에 제약이 많음
 - 유럽과 달리 한국에서는 공연을 할 수는 있으나 돈을 받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 국내에서는 길거리 공연을 하면서 돈을 받게 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음
 - 특정 공연 앞에서 30명 이상이 모였다라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 경기전같은 경우 문화재 시설이므로 경기전 반경 몇 Km 이내에서는 불가능한 상황 등 여러 법적 제재 조치가 많음
- 에든버러 프린지와 같은 자발적 축제가 활성화되도록, 공연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하고 제도개선을 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 무조건 적인 축제행사에 대한 지원보다는 축제의 지향성,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행사를 했을 때 지자체 차원에서도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될 것임

영국의 스포츠 매니지먼트산업 및 지역연계활용 방안 모색 - 맨체스터 대학 스포츠경영학과 유학생과의 면담

□ 면담개요

- 일 시 : 2022. 10. 29.(토) 18:30
- 장 소 : 워슬로우 호텔 세미나실
- 인터뷰대상자 : 맨체스터 대학 스포츠매니지먼트 유학생 홍태균



□ 맨체스터 대학 스포츠경영학과

- 브라이언콕스라는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스포츠 경영학 교수로 있음
- 금융, 물리학 등 다양한 연계학문을 가르침
- 맨체스터대학의 스포츠경영학/ Management of Leisure and

Leadership 은 스포츠매니지먼트 분야의 최고 교육국가인 영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인재 양성 기관임

○ 영국의 스포츠매니지먼트 교육 분류 기준

- (스포츠 매니지먼트) 스포츠산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 경영, 마케팅 등 비즈니스 전공
- (스포츠 사이언스) 스포츠에 대한 과학적 원리, 이론적 사고를 스포츠활동에 적용하는 전공

□ **영국의 스포츠산업 및 인재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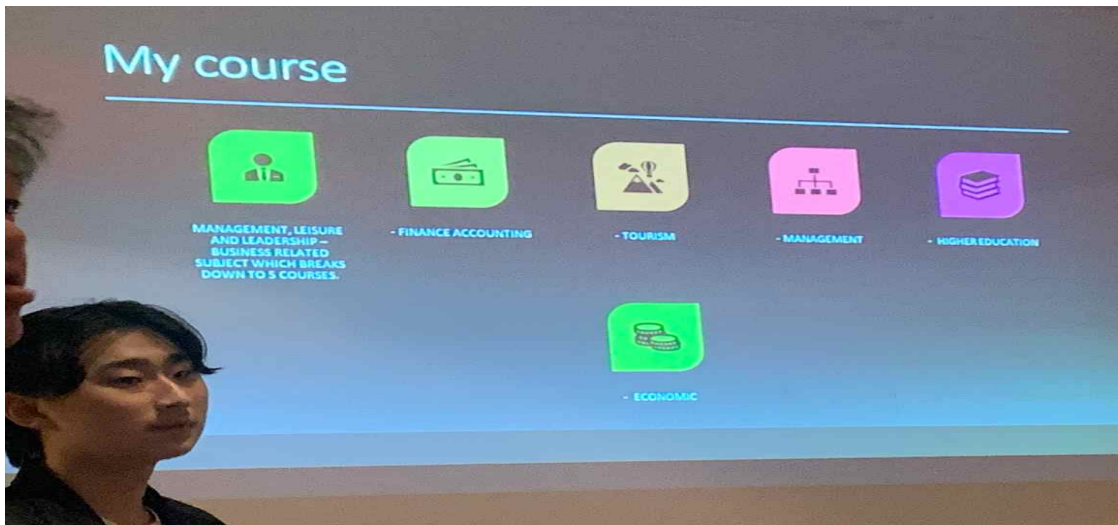
- 영국의 축구 및 스포츠 산업은 200억 파운드(약 30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녀,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규모를 자랑함
- 유럽연합의 스포츠 산업 종사자 비율 조사에서도 영국이 2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영국 내 축구와 스포츠 직종 종사자는 약 41만 7천명으로 집계된 바 있음
- 시장 규모가 크고 활성화 된 환경에서 축구 및 스포츠 산업은 전문 인재 양성을 필요로 하며, 이를 목표로 한 학·석사 교육 과정 이수를 다루는 곳이 바로 영국이며, 한국 학생들이 역시 스포츠 전문가가 되기 위해 영국으로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 **영국 스포츠 매니지먼트 교육과정 및 산학협력**

○ 교육과정

- 금융회계 : 맨체스터 시티(축구단)의 자본흐름표를 보고 직접 회계를 작성하는 과정, 돈이 어디서 나갔고 어떻게 잃었고, 코로나로 인해 자금이 어떻게 유출되고, 데미지를 주게 되었는지 직접 공부

- * 맨체스터시티 :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 역사는 짧지만 축구장 등은 초현대식으로 구성된 팀
- 스포츠 : 스타디움 등을 건설할 때 어떻게 주변환경과 연계하고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지, 선수들 트랜스퍼 fee 보다 티셔츠 티켓, 스폰서 등을 통해 어떻게 돈을 더 벌 수 있는지 공부
- 사이콜로지컬 : 어떻게하면 회사에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등 심리학적 측면에 대해 공부
- 하이어 에듀케이션 : ‘산학협력’



○ 졸업 후 1년 간 산학협력 과정 연계

- 졸업 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가서 1년 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가서 실습을 하기도 하지만 바클레이즈라는 은행으로 갈 수도 있음. 즉, 교육과정 중 중요시 여기는 것이 단순 스포츠 뿐 아니라 자금 운용 등 선수들과 구단의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자를 보지 않도록 만드느냐 등에 있음.

- 학부 수업에 있어서도 실제 맨체스터 시티라는 축구단의 직접적인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편임
- 한 달에 다섯 개 정도의 과제를 산학협력으로 추진하는데, 구단에서는 학교를 전문적 리서치 기관이나 연구소로 인식하고, 학생들은 실질적인 공부를 통해 서로 상생협력하는 관계
- 즉 한 달에 5개 정도의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맨체스터시티에서 보냄(예, 코로나 시기 구단 적자 상황 및 팬데믹 이후 관광학과 연계하여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등)
- 구단은 학교에 그 비용을 지불, 학교에서는 학생 장학금 등으로 활용
- 전북현대모터스가 전북대학교와 연계하여 연구과제를 학교에 보내고,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그에 관한 연구를 하면 전북 현대에서 전북대학교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이는 학생들의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되는 형태
- 시스템이 매우 잘 갖춰져 있어서 지역에 있는 스포츠 구단들과 학생들이 잘 연결되어 있음. 경영학, 회계학, 관광학, 일반경영학, 경제전반, 산학협력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이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영학과와 유사해 보이나, 스포츠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으며 산학연계가 잘 되어있어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음

○ 지자체와 축구단 등 스포츠단과의 관계

- 지역의 기업이 체육관을 지어주고, 지역명을 사용하는 형태로 추진됨(지자체가 체육관을 받고 네이밍을 빌려주는 형태)
- 전주시의 사례는 그 반대인 측면이 있음

Ⅲ. 정책적 시사점

1. 스포츠평화도시 및 스포츠 관광 측면
2. 지역 축제 활성화 및 산업화 측면
3. PM관리 및 공영자전가 활성화 측면
4. 기타 전주시 도입 과제

Ⅲ. 정책적 시사점

1. 스포츠 특화도시 및 스포츠 관광 측면

□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공모 대비

- 스포츠도시란 스포츠로 도시를 바꾸고, 스포츠로 도시경제를 활성화하는 도시발전 전략을 뜻함.
*(성공사례)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자동차경주, 영국 셰필드/ 4대 레포트, 호주 멜버른/ 하계올림픽 스포츠유산 등
- 스포츠는 각기 다른 사회 집단들을 통합시킬 수 있고, 젊은 층의 교육 및 도시의 보건 정책의 도구로서 고려될 수 있으며, 전주시의 경우 기업 및 산업이 활성화 되지 않은 도시라는 차원에서 스포츠나 문화 등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산업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전주시의 경우 배드민턴과 관련하여 메달을 확보한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
- 2023년에는 월드시니어배드민턴대회라는 메가국제스포츠대회가 전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주요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스포츠와 도시마케팅 통합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는 점에서도 이를 잘 준비하고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즉시 도입과제)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 국정과제 공모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을 위한 전주시만의 특정 종목 선정 및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전주시의 경우 배드민턴과 관련한 메가 스포츠 이벤트 개최, 관련 선수층 확보 등 이점이 있으므로 특화종목 및 특화 콘텐츠로 개발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추진전략 제시 연구가 필요함

(참고) 스포츠 분야 국정과제¹⁾

세부과제	주요내용
스포츠 기본권 보장으로 더 건강한 대한민국	생애주기 스포츠 활동을 촘촘하게 지원, 운동하는 국민에게 혜택 제공, 체육인이 참여하는 스포츠정책 거버넌스 구축
체육인 복지강화로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	세계 일류의 국가대표 지원체계 확립, 국민에게 사랑받는 전문체육 환경조성, 체육인 복지 및 권익 강화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공공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 , 지역특화 스포츠 신산업 육성
국제 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제고	국제스포츠 인재양성으로 글로벌 리더십 선도, 메가스포츠 이벤트 성공 개최와 신규대회 유치, 국제스포츠 기반 강화

- 국정과제 계획에 따르면 2023년에 5개 도시를 지정하는데, 3년 차 중간 평가를 거쳐 최대 5년까지 지원할 계획임
- 지원예산은 도시 당 연간 최대 50억 원 규모(국비 50%)로 전망되며, 2023년 지정도시를 선정하되 2023년에는 육성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거치고,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시기는 2024년으로 예상
- 스포츠도시는 스포츠로 도시를 바꾸고 스포츠로 도시경제를 활성화하는 도시발전전략이므로, 종합계획이 필요하고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예비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이 국가공모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음
- 도시 비전으로 스포츠도시를 설정하고, 스포츠산업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스포츠 기본권에 따른 스포츠 복지보다 스포츠를 통한 경제적 효과 및 지역 브랜드를 통한 도시마케팅 효과가 중요하게 담겨야 함
- 또한 국정과제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 지역에 비해 차별화되는 스포츠 종목 발굴 및 진흥전략,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1) 전복연구원 이슈브리핑(2022) Vol.266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 '스포츠도시 육성' 국정과제 대응>에서 발췌

□ 2023 월드시니어배드민턴대회 개최

- 2023년도에는 월드시니어배드민턴대회가 전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약 50여 개국, 3천여 명의 관광객 및 방문객이 전주에 유입되고 약 50억 원의 경제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예견됨
- 현재 대회를 약 1년 여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체육관 시설 및 운영 방식 등에 있어 전반적인 검토와 확인이 필요한 시점임
- 체육관 시설에 대한 점검 뿐 아니라 유입되는 관광객을 대비한 식당, 숙소, 관광연계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하며, 경기장과 시내 및 철도·고속버스 등과의 연계 방법, 경기 및 경기장 홍보, 마스코트, 이미지를 활용한 기념품 발굴 등 다양한 측면의 점검을 요하는 시기임

▣ (즉시 추진과제) 2023 월드시니어배드민턴대회 개최를 위한 운영 로드맵 및 추진체계 점검

<시설 측면>

- 화산체육관을 배드민턴 종목에 맞게 조명, 바닥, 관중석 등 변형 필요
- 대회 개최중인 상황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부·외부 관련 로고 등을 활용한 토틱 작업 필요
-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고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각종 부대시설 점검 필요(웜업장, VIP룸, 휴게실, 식당 등)

<기타 사항>

- 일시적으로 인파가 몰리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한 인원 배치 및 주변 도로 통제 등 *경찰 사전 협조
- 재외 교민, 외빈, 관광객 유입 대비 숙박, 식당, 편의시설 등 수용 태세 점검 및 관광연계 프로그램 마련 → 사전 각 부서 간 협조를 통해 추진
- 경기장과 시내 및 전주유입경로 등과 연계 수송방안 마련
- 각종 기념품 제작 및 사전홍보, 관람객 유치 방안 모색
- 환경친화적 대회 개최를 위한 방안 모색도 필요할 것

□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 전주실내체육관이 1973년 준공되어 46년이 경과되면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체육관 신축이 추진 중에 있음
- 파리 쿠베르탱 경기장이 1937년 준공, 이후 한 차례 재건을 거쳐 1990년 리모델링한 오래된 체육시설임에도 가변형 실내 체육관으로서 현재도 활발히 활용되어 다양한 스포츠 경기 대회를 유치하고 있음
- 또한 파리 생제르맹 핸드볼팀의 홈구장이나, 팀 경기가 없을 때에는 기존 종목 외 배드민턴, 농구, 펜싱 등 다양한 대회가 치러지고 있으며,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는 골볼 대회 개최지로 선정되기도 하였음

▶ (연차적 도입과제) 가변형 실내체육관 건립

장동에 건립 예정인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추진 시 여러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연구와 활용방안을 염두에 두고 설계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및 스포츠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도 국제대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 사용 가능한 국제대회 유치 시설로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

□ 스포츠 산업 일자리양성 및 스포츠 교육 부문 선도

- 전주시는 2개의 프로 구단(축구, 농구)과 생활체육 동호회가 활발히 운영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매니지먼트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과는 부재한 상황

▶ (연차적 도입과제)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출 및 교육의 선도 역할 수행

전주시와 대학교, 프로구단 간 협업을 통해 산학협력 활성화로 상생 구조 및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하여 전주시가 스포츠 매니지먼트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면 청년층 인구유입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스포츠를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 전주시는 전주 KCC 및 전북현대모터스와 같은 프로구단을 보유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상품 개발이 활성화 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농구의 허용, 최근 월드컵 스타로 떠오르기도 한 축구선수는 현재 전북현대모터스 소속으로 스타마케팅 등 충분히 스포츠의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도시임
- 해외 구단의 경우 ‘GLOBAL TOURISM DEVELOPMENT’ 부서가 운영되기도 하며, 프로스포츠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마케팅 정책을 선보이고 있기도 함

▶ (즉시 도입과제) 스포츠 활용 관광 활성화

관광거점도시 차원에서도 스포츠는 내국인 관광객을 비롯,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위한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음

스포츠 스타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등 전주시 차원에서도 프로구단과 협업하여 전주시와 구단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또한 Wimbleton의 사례와 같이 상징화, 유산화(스토리텔링 등)를 통한 관광 활성화도 필요할 것이며, Wimbleton을 비롯하여 안필드 스타디움 등 어느 곳을 보더라도 뮤지엄 및 기념품 샵 등이 관광자원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함

현 월드컵경기장 인근도 전체적인 도시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호남 제일문 대표관광지로 지하화 하여 조성할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 밀집지로 구상하여 관련 시설 및 뮤지엄 등을 연계하고, 이를 통한 관광지 및 관광상품으로 연계시킬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임
Wimbleton에서 블루벙지 관광해설사가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스포츠 시설에 대해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관광거점도시답게 언어별 전문해설사양성 역시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메가 스포츠대회 유치 및 대규모 정례적 대회 개최

- 맨체스터, 셰필드, 인디애나폴리스와 같은 이벤트형 스포츠 도시의 경우, 스포츠도시 개발전략의 핵심이 스포츠시설의 확장과 유산화에 있었음
- 이러한 스포츠유산과 이벤트 자원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고 개최함으로써 스포츠도시로서의 명성과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연차적 도입과제)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

① 메가스포츠대회 유치

특성화 종목 및 기타 여러 대규모의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한 관광객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스포츠 대회 유치는 경제유발효과와 더불어 지역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됨

또한 스포츠 시설 또한 강력한 브랜드 마케팅 파워를 가지고 있으므로, 새로 신축 예정인 장동 체육관을 혁신적 스포츠 시설로 발전시켜 관심을 유발하고, 스포츠를 통한 도시 브랜드 마케팅에 있어서도 특별 목표 집단에 대한 차별화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② 대규모 정례적 대회 개최

일차적으로 메가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대회 운영능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경험을 쌓고, 이후 일회성 행사보다는 비용이 다소 투입되더라도 전주시에서 해마다 특정 시기에 특정 스포츠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전주를 스포츠 도시로 브랜드화 시키고,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유발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스포츠 대회의 적극 유지와 더불어 지역의 문화, 예술 뿐 아니라 비즈니스와의 연계를 통한 이벤트 스포츠관광 목적지로서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전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대중적 스포츠의 경우 해위를 비롯 선진 스포츠도시와의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우므로, 자연환경과 주변의 관광자원, 유휴시설을 활용한 참여형 스포츠중심의 스포츠도시 개발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2. 지역 축제 활성화 및 산업화 측면

□ 전주시 전체 축제 검토 및 지역연계 방안 모색

- 전주시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축제 모색이 필요한 시점
- 2022년도에 진행된 미친축제의 경우, 전주시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한 사전 축제 형식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부터 내용, 운영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음
- 지역의 대표 축제임에도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요소 역시 부재하였으며, 관광객을 끌어들이기에도 전주의 특색이 드러나지 않는 축제로 인식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함에 따라 대내외적 축제에 대한 평가 및 전체적인 축제에 대한 검토와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기임

▶ (즉시 도입과제) 전주시 전체 축제 검토 및 지역연계방안 모색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되는 축제와 행사는 연간 23개 정도로 파악됨 이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 통합할 부분은 통합하여 축제의 내실화 및 규모를 확장하고, 반면 실효성이 없는 축제의 경우 폐지 또는 변형을 통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함

축제 평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축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도 있으며, 지역사회의 참여율 제고 및 민(民)이 주도가 되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축제를 위한 방향성 모색 또한 필요할 것임

□ 아트마켓 운영 등을 통한 전통의 산업화

-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의 경우 참여 아티스트를 선정하고 공연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자발적 참여에 기반을 두고 추진되고 있음
- 전주시의 경우 ‘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
 - 음악적으로는 ‘소리’의 고장이자 한국음악, 전통음악의 메카이기도 한 도시라는 특징이 있고
 - 한지, 한식 등 여러 측면에서 전통과 연계한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연차적 도입과제) 아트마켓 운영 및 한지, 한식 등 관련산업 축제 활성화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전세계의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공연산업과 관련한 프로듀서 등 바이어가 와서 프린지 공연을 보고, 눈에 띄는 공연을 키워나가기 때문임

제주 해비치 페스티벌, 서울 아트마켓 등은 프린지페스티벌의 형식은 아니지만, 아티스트/기획사가 자신의 공연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장으로, 전주에서도 현재 여러 장르와 접목되고 있는 한국음악을 중심으로 한 아트마켓 개최를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임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지축제의 경우에도 단순 체험행사 위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한지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포럼 또는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한지축제 시기에는 전주에 가야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임

3. PM 관리 및 공유자전거 활성화 측면

□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를 위한 주차 구간 선정

- 프랑스 파리의 경우, 「파리 공도에서의 공유서비스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용되는 주차 규정을 제정하는 조례」를 통해 인도에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함께 이용하는 지정 주차 구간에만 주차하도록 하고 있음
- 전주시의 경우 전용 거치대 없이 이용자가 불특정 장소에서 서비스를 종료하고 자유롭게 주차하는 방식인 자유 주차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 공유형 이동장치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어 보행자 불편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주시는 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 접수 중 미처리 건에 대하여 시 담당자 요청 시 견인 조치하는 방식을 전주시설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음
-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주차 구간을 사전에 확보하지 않고 민원에 의해 무단주차를 처리할 경우 불필요한 인력 및 세금 낭비가 예상되기에 PM 관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즉시 도입과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를 위한 주차 구간 선정

22년 11월 기준 전주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PM) 현황을 보면 4개 업체, 3,730대 운영 중이며, 지속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따라 관련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무단주차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

이를 개선하고자 전주시가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공유킥보드 불편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주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 금지 구역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자 주차 구간 선정 및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됨

□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검토

- 자전거의 경우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교통 혼잡, 주차문제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저탄소 친환경 도시의 교통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
- 특히, 프랑스 벨리브 공영자전거(Vélib)와 영국의 산탄데르 공영자전거(Santander Cycles)는 공영자전거 도입 이후 자동차 위주에서 사람 위주로의 교통 운영 정책 수립을 통해 시속 30km 구간 증대 및 자전거도로 증설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률 증가 및 교통혼잡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전주시의 경우 인구 65만 7천여명 중 자동차 33만 9천여대로 약 시민 2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승용차 분담률 증가 및 생태교통 분담율 감소 등과 더불어 신도시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효자공원묘지 삼거리, 서곡교 광장 사거리, 축고개로, 에코시티 주변로, 견훤로 등에서 출·퇴근시 교통정체가 심각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즉시 도입과제)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검토 논의

전주시는 지난 2013년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공영자전거(‘꽃싱이’)를 도입하여 현재 공영자전거대여소 9개소에서 404대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한된 장소와 운영시간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놓쳤다는 지적이 있음

공영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 자전거·거치대 구매, 스테이션 확대, 무인시스템 도입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데 이를 전주시설관리공단에서 전담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4. 기타 전주시 도입 과제

□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 사실 전주시를 넘어 한국에서는 거리 공연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은 것이 현실임
 - 저작권법 및 문화재법 등 위반사항으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실력을 검증받기 위해 공연을 할 수는 있으나, 돈을 받는 행위는 금지가 되어 있으며
 - 문화재 권역 내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공연을 하는 것이 불가능함
- 대구나 강릉 등에서는 버스킹 활성화를 위해 버스킹 참여자를 모집하고, 사전에 어떤 곡을 할 것인지 받아서 해당 지자체가 음원 소유권자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돈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전주시 차원에서 이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예, 버스킹 저작권료 지원사업, 버스킹 존 마련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 활용을 통한 관광자원화, 전주시 홍보 방안 모색

-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은 명품 브랜드의 콜라보를 통한 패션쇼 장소로 활용되기도 함
- 이는 세계적으로 문화재와 도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자 관광자원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함
-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재가 목조이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전주에 산재한 다양한 문화재를 활용하여 정착화된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와 함께 숨쉬는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거나,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에 대한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문화재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접근이 필요함

IV. 개별 연수보고서

IV. 개별 연수보고서

1. 대표의원

김동헌 운영위원장

다목적 체육관의 올바른 사용, 안전한 경기개최

□ 출장개요

- 일 시 : 2022. 10. 24.(월) ~ 2022. 11. 1.(화)
- 방문국가 : 프랑스, 영국
- 방문목적
 - 2023 전주월드시니어배드민턴대회 개최를 위한 홍보
 - 2022 요넥스 프랑스 오픈 대회 대회참관 및 시설·운영 벤치마킹
 - 도시재생 및 스포츠 특화도시 등 지속가능 발전 사례 연구
- 작성자 : 김 동 헌

□ 현 황

- 전주시는 2023년 전주월드시니어배드민턴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기반 준비와 함께 차기년도 예산안에 대회 경비를 상정한 상황임
- 현 전주시 체육관 실정상 신축예정인 체육관에서의 대회는 시간적으로 부족하여 개최 대상 체육관은 화산체육관이 유력한 관계로 실정에 맞춘 대회 준비가 필요하다.
- 프로선수권 대회가 아닌 만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교민들에게 대회를 홍보하고 참여해줄 것을 적극 요청

□ 출장 세부내용

- 2022 요넥스 프랑스 오픈 대회를 참관하고 체육관 내 필수 시설인 대회장, 관중석, VIP룸, 선수 워밍업 장소, 프레스룸 등을 참관하고 대회를 위한 공간 분할 및 장소가 없을 경우 대체 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며 방문객 질서통제 협조방안 연구
- 배드민턴의 발상지인 영국의 재영 체육회장과의 미팅을 통하여 재영 교민들의 2023 전주월드시니어배드민턴대회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선수단을 구성하여 대회에 참여 및 가족과의 고향방문을 해줄 것을 요청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상황)


- 복잡한 파리 시안에 위치한 쿠베르탱 경기장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아닌 다목적 체육관으로 지어졌다. 각종 대회가 있을 때마다 종목에 맞는 경기장을 설치함으로써 여러 경기를 유치하고 있다.
- 2022 요넥스 대회 역시 바닥에 배드민턴 전용 매트를 설치·고정하고 조명을 배드민턴 종목에 맞게 새로이 설치하였고 기존에 있던 VIP라운지 유리에 대회 심별과 명칭을 틴팅하여 전용구장이 아니지만 전용구장인 것처럼 조성하였으므로 2023 월드시니어배드민턴대회 개최 장소인 화산체육관을 어떻게 배드민턴 경기장에 맞게 조성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프랑스는 지역 연고의 축구단이 경기를 할 때에도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경기장 주변을 차량이동 및 방문객을 통제하고 있으며 3중 4중의 경기장 현장요원을 통해 안전에 엄격한 대처를 하고 있다.

- 영국에서 맞이한 재영 체육회장(오현균 회장)은 익산 출신이며 울산에서 열린 2022년 전국체전에도 참가하여 다녀왔을 만큼 체육에 열정적이고 모국에 호의적인 인물이다.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대회개최까지의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대회준비위원회와 체육산업과 등 대회를 준비하는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고 의회 차원에서 협조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준비하여야 한다.
- 만약 머나먼 타국에서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재외국민들이 방문한다면 전주에서 어떠한 지원내용이 있는지 관련 사업과 예산들을 검토하고 이동수단, 숙박 등의 편의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일시적으로 인파가 몰리거나 경기장 내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대회가 열리는 주변의 도로는 봉사자가 아닌 경찰의 협조를 받아 통제하고 경기장 내부는 봉사자 및 일시적으로 고용된인원으로 구성하여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 장기적 안목에서 전주시가 덕진구 장동에 추진중인 다목적 체육시설은 KCC를 위한 농구구장이 아닌 프랑스 쿠베르탱 경기장과 폴란드의 크라카우 타우론 아레나처럼 모든 실내외 종목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경기장으로써 건축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선진지 벤치마킹결과 우리시 도입과제

도입 시기별	도입 과제명	내용 (상세하게) ※ 필요하면 사진첨부	시행 국가	추진 부서	비고
즉시	2023 월드시니어배 드민턴대회 개최 준비		프랑스	체육산업과	
	화산체육관을 배드민턴 종목에 맞게 조명 바닥 관중석 등에 맞게 변형 필요				
	재외 교민초청		영국	체육산업과	
방문 의사가 있는 재외 교민 및 외빈들을 확인하여 수용태세를 점검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협조 및 지원					
연차적	전주시 다목적 체육관 건립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건립 예정인 다목적 체육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다목적 체육관을 다목적이라는 이름에 맞게 잠깐의 공사를 통해 어느 종목이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프랑스, 폴란드	체육산업과 광역시도시기 반조성단 등	
고려해 볼 사 항	급격한 인파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		프랑스 영국 웬블던	도시안전국 체육산업과 등	
	위의 사진은 프랑스 파리의 연고 구단인 파리생제르맹의 경기 후 모습으로 경기장 안전요원이 경기가 끝나고 경기장내의 모든 관중들이 원활히 퇴장할 수 있도록 자리를 지키며 관중들이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사진으로 경기장 안에서는 봉사자들이, 경기장 밖에서는 경찰들의 협조를 얻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2. 행정위원회

정שמ길 행정위원장

세계대회 준비와 전통있는 경기장 조성

□ 출장개요

- 일 시 : 2022. 10. 24.(월) ~ 2022. 11. 1.(화)
- 방문국가 : 프랑스, 영국
- 방문목적
 - 2023 전주월드시니어배드민턴대회 개최를 위한 홍보
 - 2022 요넥스 프랑스 오픈 대회 대회참관 및 시설·운영 벤치마킹
 - 도시재생 및 스포츠 특화도시 등 지속가능 발전 사례 연구
- 작 성 자 : 정שמ길 의원

□ 현 황

- 2023년 전주시니어배드민턴대회 홍보를 위해 현재 대회를 치르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쿠베르탱 경기장을 방문하여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짐

□ 출장 세부내용

- 영국 - 도시개발공사, Wimborne 경기장, 에딘버러의 축제 현장방문
- 프랑스 파리 방문 - 2022 프랑스오픈 배드민턴 대회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

- 배드민턴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세계대회가 바로 전주에서 열린다. 2023 전주월드 시니어 배드민턴 선

수권 대회로 세계배드민턴연맹이 주최하고 전주시, 전라북도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하는 대회로 약 5,000명이 참가하는 배드민턴 최대 축제다. 세계대회가 우리 전주에서 개최되니 어중간하게 준비하면 안될 것 같다. 개최하기 전에 먼저 프랑스를 방문하였다. 2022 프랑스오픈 배드민턴 개막식을 참관하였다. 경기장은 프랑스 파리 쿠베르텡 경기장으로 전체 시설은 로비부터, 경기장, 보조코트, 중앙통제실, 휴게공간, VIP라운지 요넥스 브랜드 홍보관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경기에 걸맞은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 특히 아이들을 위한 배드민턴 체험공간을 꾸며놓은 것이 인상에 남았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중요하다 생각이 된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몇 년 후에는 이 곳에서 경기를 할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 프랑스에서 배드민턴은 전국민 인기순위 5위 안에 들어가는 스포츠라고 한다. 20만개 정도 클럽과 100만명이 넘는 회원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 전세계에서 현재 많은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공유를 통한 이동수단이다. 공유자동차, 공유오토바이, 공유자전거, 공유킥보드 등이 있다.
-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편리한 이동수단인 만큼 많은 시민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 바로 자전거와 킥보드의 주차 문제이다. 집을 나서면 마구잡이로 널부러져 있는 자전거, 킥보드로 인해 눈살이 찌푸러지고 기분이 좋지 않다. 프랑스에 경우 지정된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프랑스에서는 주차구역 안에 주차를 해야만 반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배드민턴 국제대회를 전주에서 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전주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마냥 허투루 준비를 해서는 국제적으로 망신만 당할 뿐이다.
- 먼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꼭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 경험은 아이들에게 아주 큰 자산이 되고, 그 아이들은 우리들에게 다시 큰 자산이 될 것이다.
- 또한, 요즘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다. 분명히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방문할 것이다. 이러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 현재 화산체육관은 1996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26년이 되었다. 외국 유명도시들은 건물들이 100년이 넘는 건물들도 잘 보수되고 관리되어 잘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경기가 치러지는 화산체육관도 100년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가 되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체육관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 대회를 기회로 삼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된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점만 개선하는게 아닌 본질적인 문제점을 찾아 하나하나 수리를 하여야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공유자전거와 공유킥보드 주차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언제까지고 공원, 길거리, 아파트 주차장 등에 널부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없다.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해 봄직하다.
- 하루빨리 프랑스나 일본의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당장 강제할 수 없을지 몰라도 유예기간을 두고 꼭 추진해야하는 사업이다. 근시안적으로 볼 때 공유킥보드 회사에 부담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주차장을 먼저 조성하는 회사가 오래갈 것이며, 대중들이 많이 애용하는 이동수단이 될 것이 분명하다.



공유 킥보드, 자전거 주차장(프랑스)



인도, 횡단보도 옆 주차되어 있는 킥보드(우리나라)

스포츠 관광 및 스포츠 산업 연계방안 모색

□ 출장개요

- 일 시 : 2022. 10. 24.(월) ~ 2022. 11. 1.(화)
- 방문국가 : 프랑스, 영국
- 방문목적
 - 2023 전주월드시니어배드민턴대회 개최를 위한 홍보
 - 2022 요넥스 프랑스 오픈 대회 대회참관 및 시설·운영 벤치마킹
 - 도시재생 및 스포츠 특화도시 등 지속가능 발전 사례 연구
- 작성자 : 김세혁

□ 현 황

- 전주시 지역 내에는 ‘전북현대모터스’, ‘KCC이지스’와 같은 대형 스포츠 구단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관광자원화 또는 스포츠산업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전주시는 2023년 세계시니어배드민턴대회를 앞두고 있어 시설·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의 필요성 대두
- 전주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어떤 가치와 보존을 이어가야 할지에 대한 연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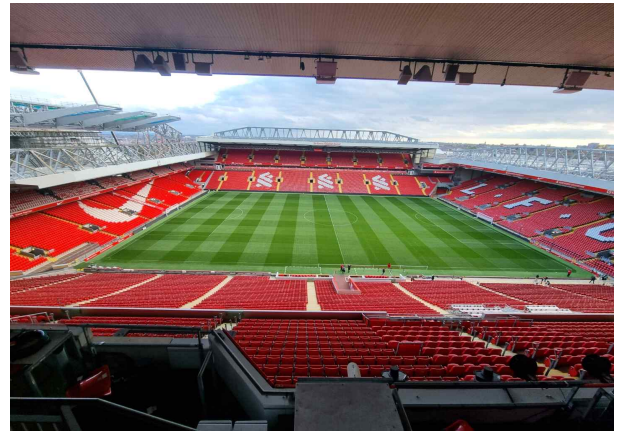
□ 출장 세부내용

- 스포츠 관광과 산업을 잘 이루고 있는 리버풀 안필드 경기장, Wimborne 테니스 경기장을 방문하여 안내 및 해설을 통해 지역에서 각 스포츠 경기장 또는 스포츠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함.

- 2022 요넥스 프랑스로프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 방문하여 경기장을 둘러보고 2023 세계시니어배드민턴대회를 대비 및 준비과제를 검토함.
- 파리도시계획 전시관에 방문하여 파리의 도시계획 사례를 둘러 보고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에 대해서 견문을 넓히는 시간을 가짐.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

- 리버풀 안필드 경기장 및 워블던 테니스 경기장 방문
 - 리버풀 안필드 경기장



리버풀 안필드 경기장은 관광지로 조성되어 각 포인트마다 안내자가 있고 몇 개의 국가들의 언어로 설명이 담겨있는 휴대용 오디오가 준비되어 있음. 경기가 없는 날 통제구역을 빼고 모두 구경할 수 있음. 기념품, 사진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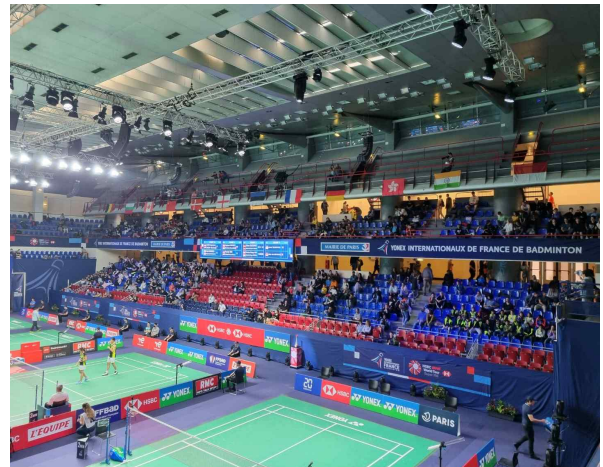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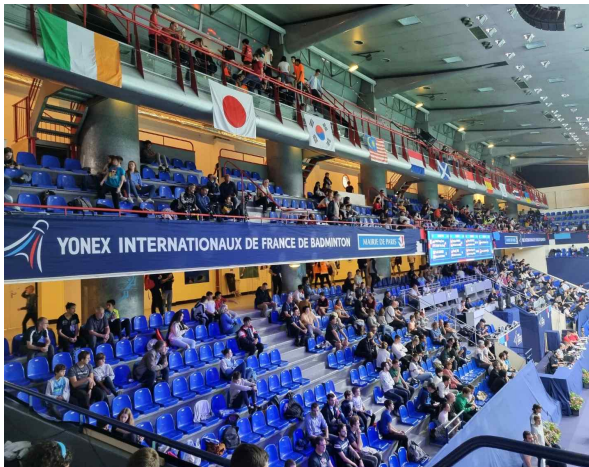
- 워블던 테니스 경기장

워블던 테니스 경기장은 관람을 신청하면 경기장 해설자가 안내하며 경기장 해설을 진행함. 많은 단체 관람객이 있었으며, 입구에는 기념품점에서 테니스용품, 워블던 테니스 경기장 마크가 있는 굿즈들을 판매하고 있음. 또, 한 경기장은 500명의 프라이빗 동호인들만 이용이 가능한데, 500명의 프라

이빛 동호인은 지역민만을 대상으로 함. 18개의 예선경기장, 20개의 연습경기장이 있으며 2개의 메인경기장이 있음.



○ 2022 요넥스 프랑스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방문



- 로비에서 배드민턴 관련 용품 및 대회 기념품(셔틀콕 케이스, 라켓, 신발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어린이 배드민턴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단체의 판매 부스도 운영되고 있었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으며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 게임(닌텐도 스위치 등)을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었으며, 방문 당시 개막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객석에 많은 관람객이 있었음. 쿠베르탱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는 4개 코트와 3,500석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었음.

○ 도시계획 전시관 방문



- 프랑스(프랑스는 도시계획을 100년으로 설정함)와 영국의 도시재생은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가치를 담아 이루어지고 있음. 폐공장을 재생하여 사용하고 기존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여 내부만 리모델링하여 건물을 사용하고 있음.
- 또 신축하는 건물도 기존의 건축양식을 따라 건축하기도 함. 필요에 따라, 강력한 규제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변형할 수 없도록 하거나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만 건축외관, 구조를 변경할 수 있음. 하여, 도시 전체에 테마, 역사가 있는 느낌이 강함.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스포츠 관광 및 스포츠 산업

- 전주시는 그 동안 스포츠를 산업이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했음. 두 종목에서 큰 구단이 유치되어있는 전주로서는 스포츠 자원이 뛰어난. 리버풀, 워블던, 맨체스터처럼 지역의 스포츠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자원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함.

○ 2023 세계시니어배드민턴대회 준비

- 내년 전주시에서 열리는 세계시니어배드민턴대회를 준비하여 방문했던 쿠베르탱 경기장보다 화산체육관이 규모가 더욱

크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며 요넥스 배드민턴선수권대회처럼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마련하는 것도 중요함. 또, 홍보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 개발, 재개발 및 재건축이 화두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전주시는 난개발의 우려를 안고 있기에 명확한 도시계획이 장기적인 플랜으로 있어야 할 것이며, 전주시만의 느낌을 잘 살리는 가치와 보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와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스포츠를 통한 지역 발전 전략 수립

□ 출장개요

- 일 시 : 2022. 10. 24.(월) ~ 2022. 11. 1.(화)
- 방문국가 : 프랑스, 영국
- 방문목적
 - 2023 전주월드시니어배드민턴대회 개최를 위한 홍보
 - 2022 요넥스 프랑스 오픈 대회 대회참관 및 시설·운영 벤치마킹
 - 도시재생 및 스포츠 특화도시 등 지속가능 발전 사례 연구
- 작성자 : 김정명시의원(행정위원회)

□ 현 황

- Wimbleton 테니스 경기장(영국 런던 머튼 구 소재)
 - 테니스 팬들의 성지이자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Wimbleton 챔피언십(Wimbleton 테니스 대회)이 열리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회를 치르는 경기장임.
 - 세계 4대 그랜드슬램 대회(Wimbleton, 호주, 프랑스, US오픈)중 유일하게 천연잔디 코트를 사용함.
 - 1868년 설립된 사설 테니스&크로켓 클럽인을 시작으로 1877년 첫 대회가 개최됨. 첫 대회에서는 남자 단식경기가 개최되었으며, 1922년 현 부지로 이전한 이래 올해로 100년의 역사가 있는 경기장임.
 - 테니스 경기가 개최되는 기간은 물론 경기가 없는 기간에도 Wimbleton 경기장을 보기 위해 수많은 테니스 팬들과 관광객들이 상시적으로 방문하고 있어 런던의 스포츠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 매년 6월 4주~7월 1주차에 경기가 개최되며, 테니스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를 비롯한 코치진 등 흰색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는 것 역시 대회와 전통이자 규율임.

□ 출장 세부내용

○ Wimbleton 경기장 주요 구성 및 운영

- 센터코트 등 총 19개의 코트 보유하고 있음.
- 센터코트의 경우 관람석은 15,000석, 유럽 최고의 시설을 자랑함
- Wimbleton 경기가 열리는 동안 전 세계에서 700여 명의 기자들이 취재를 하러 오며, 기자들이 일하는 공간인 미디어센터는 동시에 350명의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거나 경기를 볼 수 있는 중계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음.
- 미디어 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현재 새로운 미디어 센터를 짓고 있음.
- Wimbleton 테니스 경기장은 500여 명의 멤버(프라이빗 멤버십)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이들에 의해 경기장이 운영된다고 볼 수 있음.
- 선수 및 멤버의 티 룸 및 레스토랑 : 대회 기간 동안 500명의 클럽 멤버에게는 최대한 선수들과 가깝게 차를 마실 수 있는 기회 등이 주어짐

○ Wimbleton 테니스 대회 운영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 Wimbleton 테니스 경기는 2주 동안 700여 경기가 진행되며, 대회기간 동안 엄청난 수의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런던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경기장이 되고 있음.
- Wimbleton 테니스 대회 기간 동안에는 자원봉사자를 포함, 하루 6천여 명의 주민들이 테니스대회와 관련하여 일을 함.

○ Wimbleton 경기장 투어를 통한 상시 관광인구 유입

- 테니스 박물관이 포함된 테니스 투어 코스와 테니스박물관만 방문하는 2가지 코스로 운영되며,
- 경기장 투어는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되며, 영국 공식 가이드(블루 배지 가이드)가 매칭되어 진행됨.
- 경기장 투어는 전체적인 코트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주요한 코트, 잔디 관리, 미디어센터, 선수 인터뷰 데스크, 멤버들의 티 라운지 등을 관람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음.
- 경기장 투어는 1회 투어 당 30명 이상을 받지 않으며, 하루 6회 정도가 진행됨. 따라서 일 200여 명 기준으로 한 해 7만여 명 이상이 Wimbleton 테니스 경기장 투어 코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테니스 박물관만 방문하는 코스는 인원 제한 없이 상시 운영되고 있음.
- 많은 테니스 팬들에게는 Wimbleton 경기장 방문이 일종의 버킷리스트로 각인되어 있어 연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음.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

○ 수익금의 일부는 지자체에 환원

- 지자체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Wimbleton 경기장임에도 불구하고, 대회 수익금 중(방송중계, 티켓, 물품판매) 10%는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사회에 공헌

○ 지역 특산품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대회기간 중 지역 특산품(딸기, 와인, 위스키 등)을 판매하는데, 특히 크림을 얹은 딸기의 경우 이를 먹으며 대회를 보는 것이 Wimbleton의 전통처럼 내려오고 있어 Wimbleton 테니스

대회 개최 시 매일 아침마다 인근 딸기농장에서 딸기를 조달함으로써 지역 특산품과 연계하여 상생구조 마련

○ 최고의 시설, 최고의 퀄리티 유지

- 워블던은 잔디 구장으로 유명한데, 잔디 유지 관리에 경기 기간 중에는 물론 평상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대회기간 2주 동안 사용하였던 잔디는 모두 철거하여 새로운 잔디로 교체하는 등 최고의 시설로 선수들과 관광객을 맞이하여 경기장의 퀄리티를 높이고 있음.

○ 워블던의 상징

-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은 흰색으로, 스태프들은 보라색으로 통일된 복장 착용
- 엄격하고 강한 규칙 역시 워블던을 상징하는 것 중의 하나
- 워블던을 상징하는 색은 흰색, 녹색, 보라색으로 워블던 경기장 내에서는 이 세 가지 색을 활용하여 디자인함으로써 상징성 확보 예) 경기장 내 꽃도 보라색을 심음.
- 선수 및 테니스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워블던 경기장과 대회 및 런던지역을 전세계에 각인시키고 있음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영국은 과거 제조업 중심이었던 지역산업이 쇠퇴하자 스포츠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삼아 스포츠도시를 발굴·육성하여 산업도시에서 스포츠도시로 전환을 꾀함으로써 런던, 맨체스터와 같은 도시가 국제적 스포츠 관광도시로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현재 전주시는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 전주KCC농구단, 전주 시민축구단이 있으며 전주시 배드민턴 팀이 창단될 예정으로, 명실상부한 스포츠도시라 할 수 있음.

-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한 대구는 육상도시로 강릉 및 평창은 동계스포츠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한 광주는 수영의 도시로 각각의 도시가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임.
- 전주시는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전략이 다른 지역에 뒤처지므로 경쟁력을 분석하고 특화 종목 발굴 등 다각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연구 노력해야 할 것임.
- 워블던경기장 사진



선진지 벤치마킹 결과 우리 시 도입과제

도입 시기별	도입 과제명	내용 (상세하게) ※ 필요하면 사진첨부	시행 국가	추진 부서	비고
즉시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스포츠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체육 산업과	
연차적	스포츠를 통한 균형발전	정부 및 지자체와 지역 기업과 연계하는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 및 관광환경 조성		체육 산업과	
	체육시설 확충	지역특색을 고려 국제 규격에 맞는 체육시설 건립 노후화된 스포츠시설 개보수, 숙박시설 연구		체육 산업과 관광 산업과	
고려해볼 사항	스포츠 종목 다양화	도시별 특화 종목을 선택하여 추진하는 것 보다는 모든 스포츠종목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연구가 필요		체육 산업과	

스포츠특화도시조성으로 산업연계

□ 출장개요

- 일 시 : 2022. 10. 24.(월) ~ 2022. 11. 1.(화)
- 방문국가 : 프랑스, 영국
- 방문목적
 - 2023 전주월드시니어배드민턴대회 개최를 위한 홍보
 - 2022 요넥스 프랑스 오픈 대회 대회참관 및 시설·운영 벤치마킹
 - 도시재생 및 스포츠 특화도시 등 지속가능 발전 사례 연구
- 작성자 : 이보순의원(행정위원회)

□ 현황

- 전주시는 2023년 전주월드시니어 배드민턴대회를 유치하고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전주시로서는 약 80억원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 문화경제 및 체육의 도시를 알릴수 기회이다.
-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전주관광거점도시로서 스포츠 특화도시를 어떠한 테마로 구성해 갈지에 대해 선진지사례를 접목하여 전주다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 출장 세부내용

- 베르사이유궁전
 - 1시간내에 둘러보기엔 촉박하였으나 중점된 사항은 궁전의 공간을 활용한 샹넬의 패션쇼를 하였다는 것이고 국내에서는 한복을 활용한 경기전에서의 복합된 문화공간 조성과

활성화된 거리를 만드는데 있다고 본다. 최근 청와대에서 가수 비가 공연을 하였고 이는 논란을 불러왔다. 그것은 문화 공연이 문제가 아닌 상의를 탈의한 공연이 주제였다고 본다.

- 전주의 경기전은 오래된 역사의 자산으로 문화적영감을 얻고 복원해낼 수 있는데 반해 청와대는 전)정권까지 지냈던 공간이고 현재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막대한 예산으로 새롭게 공관을 조성하는데대한 반감이라고도 볼 수 있다.
- 우리의 숙제는 프랑스의 거리거리가 모두 역사를 증명하는 건축이 존재하는 것이고 국내의 건축은 급격한 발전으로 보존보다는 현대화된 건물로 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웠으며 국내 왕조역사를 복원하는데 중점을 두어야하고 한옥마을에 한정된 지역보다는 동부권지역의 조경단등과 연계 확대하여 체류형의 역사문화도시로 만들 필요를 느낀다.
- 프랑스의 거리정비는 신호등이 운전자시선에 맞추어 조성되었고 전선이나 인터넷선등이 지중화로 정비되어 있었고, 차로폭이 좁으나 자전거도로 신설이 눈에 띠었다. 또한 프랑스는 정당제로 지방자치분권을 실시하고 의회의장이 단체장이고 부의장이 부단체장으로서 행정의 일사분란하고 강력히 집행됨을 알수 있었다.

○ 프랑스 요넥스 배드민턴경기장 시설 방문 및 경기 관람

- 배드민턴만의 경기장이 있는것에 놀라웠고 그 규모와 시설에 달리보게 되었다. 로비에 들어가면서 사진을 찍을수 있도록 포토존이 있었고 기념품 전시 및 판매관이 설치 되어 있었다. 요넥스 기념품숍이 있음에도 전시판매장수익금은 아프리카 어린이 배드민턴선수에게 후원된다고 하여, 어린이들의 일상에서 배드민턴운동이 몸에 배어 전문화 되어감을 알수 있었다.

- 경기장을 들어서니 게임이 진행되고 있었고 좌석의 번호와 상관없이 잘보이는 곳을 선택하여 관람하는데 근접한 거리에서 선수와 대화도 가능할 만큼 자리가 낮아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수 있었다.
- 코트는 진청색으로 눈의 피로를 줄이고 잘 보이도록 하였으며 셔틀콕은 빨강-파랑-흰색의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색을 입혔고, 음향 및 조명도 별도의 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코트마다 음향, 조명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앙통제실에 집약되어 이곳을 통해 제어되고 있었고 별도의 조명을 설치하여 선수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 관중석은 약 3,500석정도로 코트는 4개였고 예선전을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응원하고 있었다. 파리시 초등학생은 12만명인데 그중 2,700명정도가 배드민턴을 즐기며 교육청에서 지원하여 어린이들이 현장학습을 나간다고 한다.
- 입장료는 예선에서는 일반이 32유로였으나 결승에서는 배로 뛰어 64유로를 받고 동아리는 6명이상, 장애인, 협회, 기업단체 등에게는 할인정책을 하여 생활 배드민트를 활성화 시키는 것을 알수 있었다. 현재의 경기는 올림픽-세계선수권대회 다음으로 3번째 큰 대회이고 내년 전주에서의 세계시니어배드민턴 선수권대회는 현역선수가 아닌, 전)선수층 포함 동호인대회 중 세계적으로 가장 큰 대회라고 한다. 따라서 12개의 코트를 운영할 예정이므로 준비 또한 철저히 해야 됨을 느낀다.
- 이동은 일반버스와 작은 밴을 활용한 셔틀을 운영하는데 40분데 1대씩 공항과 주요역사, 도심권을 운영한다고 한다. 교통인프라가 좋지 않은 전주는 신경써서 운영되어야 할 부문이라고 본다.
- 잠시후 국내선수들이 경기를 하였는데 반가웠고 소리높여 응원했지만 석패하여 아쉬웠다.

○ 리버풀과 맨체스터의 대성당방문

- 세계역사나 국내역사를 돌아보면 종교가 빠질 수 없다. 영국의 역사를 학교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아스라이 떠오르는 기회였고 그 웅장함과 역사의 보존성에다시금 놀라게 되었으며 해리포터를 좋아하는 딸과 소통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국내는 종교의 흔적으로 무엇을 관광화 할것인가를 돌아보니 불교의 사찰중심으로 여행하는 것이 떠오른다. 그렇지만 최근 전주에 평화의전당이 건립되면서 카톨릭 중심의 여행코스를 개발하여 관광상품화 해보도록 하는것도 우리의 할 일인듯 싶다.
- 서울의 명동성당, 전주의 전동성당, 초남이성지, 천호성지, 평화의전당 등이 떠오른다.

○ Wimbleton 경기장 및 Wimbleton 테니스 박물관

- 테니스장의 선진화된 관리에 대단함을 느끼었고 천연잔디에서 연습하고 경기하는 그들이 부럽다. 우리나라는 맨땅에서 경기를 하고 연습하는데 따라갈수 없는 자존감이 느껴졌다. 또한 지역 우선주의 즉, 지역민과 함께 상생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전주는 내년 세계시니어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화산체육관에서 실시된다. 다목적용으로 지어진 화산체육관이 배드민턴 대회를 치루기에는 많은 시설투자와 조명, 음향, 코트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
- 프랑스의 요넥스경기장 만큼은 아니지만 선수들에게 불편을 주지말아야 할 부분인듯하다. 또한 이들과 함께오는 분들의 서비스또한 점검해보아야 한다. 숙박과 교통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들이 머물면서 돌아볼수 있는 여행상품도 선별해 놓아야 할듯하다. 1-2시간의 쇼핑뿐만 아니라 하루더 머물면서 볼수 있는곳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 전주의 문화를 더 알리고 뇌리에 남길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더듬어볼 수 있겠다. 있는 것을 활용한 관광자원의 활용면에서는 전통성당과 성지순례로 평화의전당등의 종교 여행을 추천하며, 새로운곳의 여행으로 도서관여행상품으로 덕진공원의 연화정도서관도 가볼만한곳이다.
- 전주는 스포츠관광을 목표로 장동에 체육시설을 집중화 시키고 관광 및 스포츠관광 테마구상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의 발전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것인지에 대한 고민인데 이는 전주의 탄소 산업발전에 일익이 될것이라 본다. 스포츠 의류 및 라켓등, 생산성과 관람으로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시판매, 스포츠인들이 해외나 국내 기업에 연계하는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의 주도적인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스포츠일상화로 생활속의 스포츠화가 필요하다. 학교의 운동장에서는 함성과 학생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찾아볼 수가 없다. 학생들을 위한 강당은 일부 지역민들의 동아리팀에 넘겨

주었다고 봐도 될만큼 빼곡히 임대되어있다.

- 그곳은 학생들의 함성이 넘치는 곳으로 되돌려야 하며 그들의 땀으로 적셔져야 한다. 저학년 유소년들부터 스포츠 생활이 프랑스의 배드민턴처럼 Wimbleton 테니스장처럼 스포츠 관광산업화가 될 것이다.

3.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

□ 출장개요

- 일 시 : 2022. 10. 24.(월) ~ 2022. 11. 1.(화)
- 방문국가 : 프랑스, 영국
- 방문목적
 - 2023 전주월드시니어배드민턴대회 개최를 위한 홍보
 - 2022 요넥스 프랑스 오픈 대회 대회참관 및 시설·운영 벤치마킹
 - 도시재생 및 스포츠 특화도시 등 지속가능 발전 사례 연구
- 작성자 : 문화경제위원회 송 영 진

□ 현 황

- 2023년도 전주월드시니어배드민턴대회 개최에 따라 개최 장소인 전주화산체육관 리모델링 시행 중
- 스포츠 특화도시 공모를 위한 관련 시설 및 타 지역 사례 연구가 필요하며, 스포츠대회 유치에 자극제가 되어 전주시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
- 전북현대 및 전주 KCC를 연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며, 해당 구단과 지역과의 상생 협력방안 모색도 필요한 시점임
- 경기장의 관광상품화, 스포츠와 관련한 다양한 문화를 유산 화하고 박물관을 만들어 도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출장 세부내용

1. 리버풀 축구단 방문 시설투어(리버풀구단&스포츠관광 연계)

-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팀 중 하나로 경기 중이 아닌 평상시에도 수많은 축구 팬들이 찾는 명소
- 평소에는 안필드 스타디움 투어가 진행되며, 경기장 곳곳을 둘러볼 수 있고 라커룸 및 경기장 필드 등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임
- 뮤지엄도 운영되고 있으며, 뮤지엄에서는 각종 트로피, 안필드 스타디움 및 리버풀 FC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구장은 시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관리 운영하며(잔디 등 특수설비를 통한 관리), 안필드 스타디움 투어에 투입되는 직원 역시 자원봉사자나 시의 지원을 받는 인력이 아닌 회사 고용인력임

2. 맨체스터 방문 스포츠마케팅 전공 유학생 간담회

(맨체스터유나이티드 축구단 지역사회 공헌)

- 영국의 스포츠매니지먼트 교육과정은 세계적으로 유명, 세계 각지의 학생들이 유학을 오고 있음
- 주요 교육과정은 금융회계, 스포츠, 심리학, 관광, 산학협력 과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포츠 자체가 중심이 되기 보다는 자본 흐름, 구단 경영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음
- 특히 산학협력 부분이 잘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구단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구단의 자본 흐름을 분석하여 학생들은 공부를, 구단은 이들의 연구를 전문적으로 생각하여 활용하고 있어 서로 상생하는 관계임

3. Wimbleton 테니스 경기장 방문 시설투어

(경기장 관리운영)

- Wimbleton은 유일하게 잔디코트를 사용하는 대회로 잔디코트 관리에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경기 시에는 8mm로 잔디를 손질하며, 평상시에도 잔디관리를 위해 잔디깎기를 비롯, 박테리아들이 살지 못하도록 바람을 불어주는 기계 운영 등을 하고 있음
- 10월에는 차년도 대회를 위해 잔디를 모두 걷어내고 다시 까는 작업을 추진하기도 함
- 경기장 인테리어의 경우 Wimbleton을 상징하는 세 가지 색을 중심으로 하여 관리하며, Wimbleton에서 벌어지는 경기 및 경기장과 관련한 어떠한 사안이든 문화유산화 하는 작업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 일자리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대회 기간동안 주민들의 부수입으로 ‘렌트’ 활성화(조코비치 등 유명 테니스 인사의 경우 가족들을 위해 큰 집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렌트하기도 하며, 인근 아파트는 미디어에서 임차)
- 대회기간 동안 자원봉사를 포함하여 6천 여 명의 주민이 테니스대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상시적으로 160여 명이 직원으로 근무하며 경기장 관리, 잔디관리 등을 하고 있음

(지역경제 파급효과)

- Wimbleton의 전통으로 크림을 얹은 딸기를 먹는 것이 있는데, 이 딸기는 매일 새벽 인근 지역에서 공수되는 딸기로 지역 농민들에게 주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음

- 경기가 개최되는 기간에는 전 세계에서 엄청난 수의 경기 관람객과 관광객이 모여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

1. 리버풀 벤치마킹

-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아시아챔피언)을 명문구단으로 만들기 위한 행정 지원체계 구축 필요함 → 시설 지원, 홍보 지원 등
- 아시아 최고 축구단&지역 문화관광 레저와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스포츠 특화도시 “전주” 도시 브랜드화 필요함

2.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지역사회공헌 벤치마킹

- 학생들의 연구를 구단에서 활용하고, 학교에 그에 상응하는 연구비를 지급, 연구비는 학생들의 장학금 등으로 활용되는 구조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역할도 함
- 구단 운영에 있어서도 지자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체육관을 지어주고 그를 연고로 지자체명을 활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임.
- 전주연고 프로 스포츠팀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KCC 농구단 지역사회에 자발적인 사회공헌 필요함.
(지역사회공헌재단 설립, 유소년,여성,장애인 축구지원 등)

3. 워블던 테니스장 벤치마킹

- 워블던 테니스 처럼 지역특화 스포츠 “종목” 발굴 필요함
전주 글로벌 스포츠도시 브랜드 육성으로 전통문화 & 음식 연계 스포츠관광 도시로 발전 필요함.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스포츠도시 육성의 필요성

- 한국 사회에서도 점차 생활의 관심사가 일과 더불어 레저, 관광, 스포츠 등 여가생활로 옮겨가면서 여가 스포츠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신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 전주의 경우 대기업 및 특정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스포츠나 문화 등을 중심으로 한 연성적 개발에 더욱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스포츠도시 조성을 통한 도시브랜드 형성은 지역의 지명도를 세계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지역의 이미지를 좋은 방향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의 정체성 확립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관광객, 자본 등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개발이 가능한 구조를 형성시킬 수 있음
- 다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종 체육 관련 시설물 등의 건축·리모델링 시, 보다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지자체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 2023년 지역특화 스포츠도시육성 국정과제 “배드민턴 특화도시” 공모 도전!

- 올림픽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 총 10개의 올림픽 메달을 “전주” 출신 선수들이 따냄
- 올림픽 역사상 특정지역출신, 특정 종목에서 이렇게 많은 올림픽 메달이 나온 지역은 없음.
- 기네스북 등재도 검토 해 봐야 하며,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 “전주”를 세계속에 배드민턴 메카로 육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선진지 벤치마킹 결과 우리 시 도입과제

도입 시기별	도입 과제명	내용 (상세하게) ※ 필요하면 사진첨부	시행 국가	추진 부서	비고
즉시	2023 국정과제 공모신청	지역특화스포츠도시육성.	영국 프랑스	체육 산업과	
	스포츠 관광 연구용역 실시	지역연고 프로구단 연계 스포츠관광상품 개발.	영국	체육 산업과 &관광 산업과	
연차적	메가 스포츠 이벤트	2026년 세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유치.	프랑스	체육 산업과	
	글로벌 도시 브랜드화 “전주”	스포츠도시 +국제적관광도시 예)윌블던, 리버풀, 맨체스 터, 멜버른, 시드니 등등.	영국 프랑스	체육 산업과 &관광 산업과	
고려 해볼 사항	스포츠 도시 구상	스포츠복지(건강), 스포츠산업(탄소), 스포츠관광(문화) 새로운 신성장동력 발굴.	영국 프랑스	체육 산업과 &중소 기업과	
	지역사회 공헌재단 설립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 KCC농구단 지역사회 공헌.	영국	체육 산업과	

전주다운 전주만의 문화, 역사, 스포츠박물관을 꿈꾸다.

□ 출장개요

- 일 시 : 2022. 10. 24.(월) ~ 2022. 11. 1.(화)
- 방문국가 : 프랑스, 영국
- 방문목적
 - 2023 전주월드시니어배드민턴대회 개최를 위한 홍보
 - 2022 요넥스 프랑스 오픈 대회 대회참관 및 시설·운영 벤치마킹
 - 도시재생 및 스포츠 특화도시 등 지속가능 발전 사례 연구
- 작성자 : 김윤철(문화경제위원회)

□ 출장 세부내용

-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어느 곳에 가든 처음 방문하여 마주치는 현상들은 항상 이채롭고 호기심을 갖고 집중하게 된다. 무릇 국외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은 새로운 감성 발산의 범위를 넘어 배움의 대상으로 다가온다. 유럽 출장은 여러 번 접했지만 프랑스와 영국은 첫 경험이었어서 설레이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 하지만 파리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냉정해지는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이를테면 「취사선택」이라는 자신을 향한 명령이었다. 아무리 선진국을 보고 있지만 배워야 할 대상을 꼼꼼히 각인하고 비교우위에 있는 우리것들은 더욱 소중히 가꾸어 전승보존해야하고 버려야 할 대상들은 우리들에게 적용되지 못하도록 예방적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첫날 파리 배드민턴 국제대회 현장에서는 태극전사들을 응원하며 나라 사랑을 느껴보면서 일반행정을 중심으로 유관 기관들의 일체감 있는 협조 양태를 보면서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 현장에서 스포츠정신을 일깨우며 응원에 열중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단체적 움직임이 다른 아닌 교육청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자치단체 행정의 주관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를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투여하여 지원한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말았다. 관중석을 빼곡히 메우고 열띤 현장 분위기 연출과 더불어서 당연한 국제 대회의 성과 또한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

- 파리 중심가 거리에서는 깨끗하게 정돈 관리되는 전주시의 청결한 거리 풍경이 뇌리를 스쳐갔다. 이어서 왕복 4차선 도로 양측에 즐비하게 서 있는 차량들을 보고 내심 놀라웠다. 구도심 중심으로 왕복 4차선 도로에 왕복 2차선만 주행 도로로 사용하고 2개 차로를 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유료 주차, 정차공간으로 설정했다는 것이었다.
- 시민들도 유료주차를 받아들이고, 행정집행에 순응함으로써 난잡한 주차환경을 민관협약하에 피해간 모범적 결과였다.
- 무엇보다도 극도의 부러움을 폭발시킨 대상은 에펠탑의 웅장함과 섬세하고 화려한 야간 조명은 더할 나위 없이 탄성을 자아낼만 했지만 세느강변에 즐비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각종 건물들의 조우는 역사자원이 얼마나 관광의 중요한 요소인가를 재인식하기에 충분했기에 전주에 산재한 중요문화자원과 역사자원들을 보존 관리해야하며. 아울러 발굴, 복원하여 관광자원 인프라를 구축해야할 소명의식을 가져보았다.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이제는 첨단산업을 제외한 부문중에서 문화중심의 자원들이 국민들의 가장 큰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에든버러 시내 풍광에서 한옥마을과 연계하게 되었다. 그리 크지 않은 도시이지만 거러거리마다 홍위병들처럼 자태를 유지하며 통일된 특유의 건축양식으로 보존되고있는 특별함을 엿보면서 전주의 한옥마을 또한 건축양식면에서는 고유의 특색을 유지해야함을 깊이 새기고, 한옥지구와 주변 역사도심지구의 관리 측면에서도 한옥 지구는 조금 더디더라도 한옥과 조화를 이루어내는 규제는 일부 유지해야 할 필요성과 역사도심지구에 관해서는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여도를 감안한 관광지구가 될 수 있도록 업종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관광객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 역사의 숨결을 진정시키면서 리버풀 전용축구경기장에 들어섰다. 스포츠마케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선 주지의 사실이지만 홈경기가 없는 날에도 현장방문하여 구장소속 각종 시설들을 돌아보는 관광객들의 방문객수에 아연 놀라고 말았다. 경기구장 수입외에 별도의 수입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전주에 접목해야할 각종 경기장을 신축하고 재단장할 때 시설의 국제규격화를 필히 선행해야 함은 물론 선진적이고 안전한 편의시설 구축이 관건임을 깨닫게 되었다.
- 워블던테니스 경기장에서도 동감이였다. 잘 만들어진 스포츠 역사와 전통 그리고 경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들을 대하는 순간순간마다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선진지 벤치마킹결과 우리시 도입과제

인구가 많지 않은 소도시가 테니스를 매개로하여 젊은이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일자를 양산한다는 점에 긍정적인 생산자원을 확인하였고 우리 전주도 베드민턴 메카도시로서 역사를 재정립하고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각종 국내 및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스포츠 행사의 낙수효과로 전주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면서 두주먹에 힘을 주며 다짐하였다.

더 많은 것을 쏟아내려면 펍 길어질 듯하다.

눈에 보이는 거 모두가 배움의 대상이다. 많이 보고 많이 느끼는 것 그것들이 집약되어 새로운 전주를 꿈꾸어 보며 줄필을 놓는다.

100년 이상 활용 가능한 다목적경기장 신축

□ 출장개요

- 일 시 : 2022. 10. 24.(월) ~ 2022. 11. 1.(화)
- 방문국가 : 프랑스, 영국
- 방문목적
 - 2023 전주월드시니어배드민턴대회 개최를 위한 홍보
 - 2022 요넥스 프랑스 오픈 대회 대회참관 및 시설·운영 벤치마킹
 - 도시재생 및 스포츠 특화도시 등 지속가능 발전 사례 연구
- 작성자 :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 현 황

- ‘23년 9월 세계 50개국 3,000여명의 배드민턴 선수가 참가하는 대규모 동호인 국제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주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하지만 현재 전주시는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이 없어 규모 있는 국제대회 유치와 이를 연계한 회의, 전시 등의 행사 유치의 한계를 가짐
 - 덕진구 장동 월드컵 경기장 부근에 경기장 부지를 확보하고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비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음.
- 신축 다목적 스포츠 시설을 건립하고 이를 활용한 각종 스포츠 대회의 유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으로 공연, 전시 등 컨벤션의 역할을 겸할 수 있는 시설,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면서 전주의 이미지를 널리 보여줄 수 있는 체육시설 필요.

□ 출장 세부내용

- 2023년 전주 시니어배드민턴대회 홍보를 위한 활동 진행
 - 프랑스 배드민턴협회장 미팅 및 환영 인사
- 전체 시설 투어 및 운영 관련 인터뷰(관계자 Pierre LUSSET)
 - 로비 → 경기장 → 보조코트 → 중앙통제실 → 선수 및 관계자 휴게공간 → VIP 라운지 → 요넥스 브랜드 및 대표선수 홍보관 / 라켓정비 공간 → 선수 및 언론사 등 관계자 공간 / Mixed Zone → 대회 관계자 사무실
- 프랑스 배드민턴협회 부회장과 매니저의 자세한 경기장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보조 코트의 운영상황에 대해 청취 이후 중앙통제실과 선수 휴게공간을 비롯한 선수와 언론사 등 관계자 공간 등 경기장 전반에 대한 견학과 경기장 공간구성 등을 이해함.
- Stade Pierre de Coubertin은 근대올림픽의 창시자인 피에르 드 쿠베르탱의 이름을 딴 스포츠 경기장이며, 파리 생제르맹 핸드볼의 홈구장으로 파리에 있는 핸드볼 경기장.
- 1937년 건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당시 폭격 이후 재건되었으며, 1990년에 리모델링과 증축을 하여 지금의 모습이 되었음.
- 파리에 적을 둔 핸드볼팀 PSG의 홈경기장이지만, 경기가 없을 땐 핸드볼 경기 외 다른 경기를 개최하기도 하는 다목적 경기장임. 경기장 내 3개의 코트를 설치할 수 있어 농구, 배구, 유도, 펜싱, 배드민턴 등의 경기를 진행할 수 있음.
- 2024년 개최예정인 파리 올림픽에서 탁구경기장으로 선정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전주실내체육관은 1973년 준공되어 49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체육관 신축이 절실하며, 전주시는 2024년까지 전주시 장동에 새로운 체육관을 건립할 예정.
- 하지만 전주실내체육관은 50년이 채 되지 않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해야 해야함. 파리 Stade Pierre de Coubertin의 경우 1937년 건축되었고, 전쟁으로 재건되었지만, 한차례의 리모델링, 증축으로 현재의 모습을 유지할 뿐 아니라 올림픽 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
 - 전주종합경기장(1965년), 전주실내체육관(1973년)의 경우 경기장 활용도 측면에서 5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안정성 및 활용성 등이 떨어지는 상황, 최소 100년 이상 활용이 가능한 장수명 건축을 위한 대책이 요구됨.
 - 100년 활용을 위한 경기장은 장수명 건축을 위한 설계, 시공 방법 뿐 아니라 평상시의 유지 보수를 위한 관리적 측면도 매우 중요함. 파리 경기장의 경우 유지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경기장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계획마련 필요. 전주 실내체육관의 경우 농구경기가 없는 비시즌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
 - 새 다목적 경기장을 건립하면, 연중 활용계획 수립하고, 각종 대회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
 - 특히 전주의 문화자산과 연계 가능한 공연, 전시 등 스포츠를 넘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도 고려 필요
- 다목적 체육시설 중 vip룸 등 일부 시설을 전주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과 지역 대표기업인 하이트를 비롯한 기업에게 장기로 임대하여 안정적인 수입원 유지와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노력필요.

축제·관광산업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출장개요

- 일 시 : 2022. 10. 24.(월) ~ 2022. 11. 1.(화)
- 방문국가 : 프랑스, 영국
- 방문목적
 - 에든버러 프린지페스티벌 소사이어티 인터뷰를 통한 축제 산업 노하우 학습 및 지역 연계 방안 모색
 - 2023 전주월드시니어배드민턴대회 개최를 위한 홍보
 - 2022 요넥스 프랑스 오픈 대회 참관 및 시설·운영 벤치마킹
 - 도시재생 및 스포츠 특화도시 등 지속가능 발전 사례 연구
- 작성자 : 신유정 의원

□ 현 황

- 전주시는 현재 관광거점도시·문화예술도시로써 기능하고 있음.
-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축제·행사는 약 23개로 지역 특성에 알맞은 축제로 방향과 정체성을 잡아갈 시기임.
(소규모 행사 및 상설공연·전시행사, 학술행사 제외)
- 엔데믹 시대가 다가왔으나 지역경제가 위축되어있는 상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출장 세부내용

-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내 프린지페스티벌을 주최하고 있는 ‘프린지 소사이어티’ 협동조합의 Chris(예술가 지원 담당)와 Allen(행사 장소 및 등록, 관리 담당)과 프린지페스티벌이 열리는 거리 내 위치한 프린지 소사이어티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프린지페스티벌 관련 설명을 듣고 페스티벌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함.
- 전 세계 테니스 선수들과 팬들의 성지인 테니스 대회가 열리는 Wimbleton 경기장·Wimbleton 론테니스 박물관을 방문하여 스포츠 관광해설사 ‘Caroline Cloutte’의 해설과 함께 시설과 이에 대한 역사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함.

□ 연구과제 및 주요내용

< 프린지페스티벌 >

- 프린지페스티벌의 역사와 추진 현황
 - 에든버러 지역에서 진행되는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내 프린지 페스티벌은 1947년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 초청 받지 못한 공연 팀들이 자발적으로 공연을 진행하면서부터 시작되었음. 아마추어·전문 공연팀을 나누지 않고 누구나 공연을 할 수 있는 축제로 이후 1958년 프린지 소사이어티가 설립되어 공연을 하고 싶은 개인·단체를 지원하고 행정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하루에도 여러 곳의 행사 장소 및 거리에서 공연이 진행되며 큰 장소에서는 100개의 쇼가 올라가기도 함. 2022년 진행된 프린지페스티벌에서는 220만장의 티켓이 판매됨.

- 모두에게 공연기회를 부여하며 아티스트 육성 및 바이어 매칭
 - 누구나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점이 프린지페스티벌의 가장 큰 특징임. 프로그램 북에 등재되고 프린지 소사이어티에서 제공하는 미디어 연결·공연 후 리뷰 연결 등의 홍보 서비스를 받으려면 300파운드를 내고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등록하지 않아도 길거리에서 자유로운 공연이 가능함.
 - 따라서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이나 이제 막 예술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이들이 지산의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그라운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음.
 - 프린지페스티벌에서 데뷔하면서 초창기 커리어를 쌓고 세계적인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이어가는 좋은 사례가 많이 있음. (ex) 코미디그룹 몬디파이톤, 배우 엠마 톤슨)
 - 프린지 소사이어티는 페스티벌 내 아티스트와 세계적인 바이어를 대상으로 매칭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깊은 점임. 예를 들어 대규모 발레공연을 기획하고 있는 바이어나 프로듀서가 축제에 오게 되면 프린지 소사이어티에 등록해주고 발레공연을 올리는 발레단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학생 자체 공연이었던 뮤지컬 식스도 프로듀서에게 발탁되어 브로드웨이 공연까지 가기도 하였음.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유명한 뮤지컬 해밀튼 제작자는 프린지페스티벌에 매년 방문하여 어떤 작품이 성장할지 동향을 파악하기도 함.

-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며 민이 주도하는 형태
 - 프린지 소사이어티는 협동조합의 형태로 축제 기간이 아닐 때에는 3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장소 선정부터 공연 기획까지 모두 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의 기본적인 역할임. 아티스트가 공연 장소를 구해오면 프린지 소사이어티는 관련 행정적인 역할만 수행하며 아티스트와 굉장히

루즈하면서도 독자적으로 연결되어있는 구조임. 헤드디렉터, 아티스트디렉터가 있는 에든버러 인터내셔널페스티벌과 달리 프린지페스티벌은 민(民), 즉 아티스트가 독자적인 자신만의 공연을 펼치는 것을 중요시하기에 헤드디렉터가 없음.

- 축제 기간이 아니어도 축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거리
 - 프린지페스티벌이 열리는 기간이 아닐 때에도 일부 거리에서는 아티스트들의 길거리 공연이 열리고 있어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음. 문화경제위원회가 방문했을 때에도 공연이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거리공연을 관람하였음. 이와 같은 지역 특성으로 계속 관광객이 유입되는 상황임.



< 워블던 경기장·워블던 론테니스 박물관 >

- 브랜딩·관광자원 유산화 작업에 가장 큰 비중
 - 워블던 테니스 경기장은 경기가 열리는 2주 동안 약 50만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경기장 입장객의 70%가 외국인임. 경기 시즌이 아닐 때에도 관광객 30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관광해설사가 진행하는 투어가 하루에 6번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장에 방문하지 않고 박물관만 관람하는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 중임.

- 경기장 내 모든 디자인의 컬러는 ‘초록, 보라, 흰색’ 으로 통일되어있으며 화단의 꽃도 세 가지의 색만 있음. 더불어 철저한 잔디 구장 관리를 하고 있는 경기장인 만큼 이를 홍보하기 위해 자연과 어우러지는 건축 디자인을 지향하고 있음.
- 대회에 참여한 선수들이 사인한 벽을 포토존으로 기획하고 가장 긴 시간 동안 진행된 경기를 기념하는 표지판을 세우는 등 작은 요소도 관광자원으로 남기는 역할을 잘 하고 있음.

○ 테니스 대회와 지역 농산품 연계

- 대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경기장과 가까운 동네인 켄트 지역의 농산품 딸기를 새벽 4시에 따서 경기장에 가져와 10시에 판매하고 있음. 이 딸기에 샴페인을 먹으며 경기를 관람하는 게 전통으로 자리 잡음.

○ 지역구단의 사회공헌 및 대회와 지역주민 연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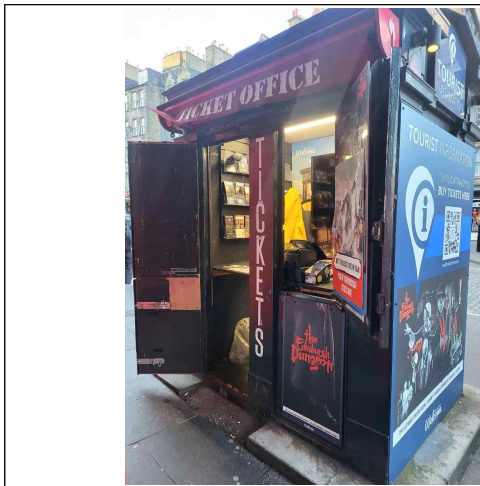
- 지역구단은 홍보 수익의 10%를 지역 테니스 클럽에 환원하고 영국회사인 슬레진저는 100여 년 동안 테니스 공을 제공하고 있음.
- 대회기간에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하루에 약 6,000여명의 지역주민이 일하고 있으며 160여명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음. 더불어 대회 내 볼보이·걸은 워블던 인근 지역 학생이 지원 자격이며 매년 1,000명 정도 지원하여 경쟁률이 5:1에 달함. 워블던 대회 볼보이·걸은 학생들에게 최고의 이력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지원하고 있음.

○ 박물관 특성에 알맞은 흥미유발 전시 요소 및 방식

- 워블던 론테니스 박물관은 워블던 테니스 대회의 역사와 선수들의 이력 및 일상을 전시로 공유하고 있음. 라커형식의 전시, 옷장, 수납함을 열어 전시를 보는 방식을 통해 일방향이 아닌 참여형 전시를 진행하고 있음.

< 기타 >

- 폐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한 티켓부스 및 특색있는 투어버스
 - 사용하지 않는 공중전화부스를 여행 안내 및 티켓 판매 부스로 전환하여 활용하고 있음. 더불어 시기나 지역의 특색에 맞는 디자인의 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어 시선을 집중시키고 승차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함.



폐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한 티켓 판매부스



임블던 론테니스 박물관 전시 모습



스포츠관광해설사와 함께한 임블던 구장 투어



임블던 테니스 대회 때 판매하는 지역농산물 모습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전주시 주요 관광명소의 역사와 스토리 자원의 아카이빙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브랜딩 작업이 필요함.
- 문화예술도시인 전주는 인구수 대비 문화예술인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도시임. 따라서 이들이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예술인과 바이어·프로듀서를 매칭하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함.
- 더불어 스포츠 경기 전, 지역농산물을 판매하는 문화 형성 등을 통해 지역축제·행사에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자세한 도입과제는 하단 표에 작성하였음.

선진지 벤치마킹 결과 우리 시 도입과제

도입 시기별	도입 과제명	내용 (상세하게) ※ 필요하면 사진첨부	시행 국가	추진부서	비고
즉시	전주시 전체 축제 검토 및 지역연계 방안 모색	지역사회와 연계성이 높은 특색있는 전주시 축제방향 모색 및 2022 가칭 미친축제 대내외적 평가 진행	영국	관광정책과 문화정책과	
즉시	폐 공중전화부스 활용	지역 내 사용률이 저조한 공중전화부스 파악 후 지역 예술공연 티켓 판매 부스, 관광안내소 등으로 활용	영국	문화정책과	
연차적	한옥마을 거리공연, 특색행사 진행	한옥마을 버스킹 등 다양한 분야의 거리공연 공식 진행 및 전통 브랜드 패션쇼 등 특색행사 진행	프랑스 영국	문화정책과 한옥마을사업소	
연차적	스포츠 경기와 지역 농산품 연계	전주실내체육관,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CC 농구, 전북현대모터스 축구 경기와 지역 농산품 연계하여 판매 진행 (전주 복숭아 등)	영국	농업기술센터 체육산업과	
연차적	관광명소 브랜딩 및 관광자원화	지역, 관광명소의 이야기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하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포토존 등 기획	프랑스 영국	관광정책과 전통문화유산과	
고려해볼 사항	스포츠·문화관광 전문 해설사 육성	스포츠관광해설사 육성 및 명소 당 전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배치	영국	문화정책과 관광정책과 전통문화유산과	
고려해볼 사항	지역예술인&바이어 매칭 진행	전주시 축제 및 지역 공연 명소와 바이어&프로듀서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진행	영국	문화정책과	

스포츠 산업과 지역발전

□ 출장개요

- 일 시 : 2022. 10. 24.(월) ~ 2022. 11. 1.(화)
- 방문국가 : 프랑스, 영국
- 방문목적 :
 - 2023 전주월드시니어배드민턴대회 개최를 위한 홍보
 - 2022 요넥스 프랑스 오픈 대회 대회참관 및 시설·운영 벤치마킹
 - 지역의 스포츠 산업과 발전 사례 연구
- 작 성 자 : 온 혜 정

□ 현 황

- 전주시에서 개최 예정인 2023년 전주월드시니어배드민턴대회 홍보와 대회의 전반적인 계획을 위하여 2022년 요넥스 프랑스 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시설 투어
- 지역의 스포츠 산업과 지역 발전 사례 연구를 위하여 맨체스터유나이티드 축구단 지역사회 공헌 활동 사례 탐색
- 1887년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세계 4대 테니스 메이저대회 중 하나인 Wimbleton 대회 테니스장 방문을 통해 국제규모 이벤트 개최 준비에 대한 벤치마킹

□ 출장 세부내용

- 2022년 요넥스 프랑스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프랑스 파리 쿠베르탱 경기장 방문 시설투어와 관계자 인터뷰 및 경기 관람를 통해 2023년 전주월드시니어배드민턴대회 운영 준비와 과제에 대해 연구하고, 대회장의 필수시설 및 대체 시설 등 마련 방안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

- 맨체스터대학에 재학중인 학생과 간담회 실시를 통해 스포츠 자원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지역의 스포츠 산업을 통한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연구
- 워블던 경기장 방문을 통해 역사와 운영방식등 경기장 내부 설명, 질의 청취하며, 전주에 위치한 전주KCC와 전북현대모터스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상황)

- 2022년 요넥스 프랑스로프 배드민턴선수권대회 프랑스 파리 쿠베르탱 경기장 벤치마킹
 - 프랑스 파리 쿠베르탱 경기장은 다목적 체육관으로 4개의 코트와 3,500석 규모로 선수들이 몸풀기를 할 수 있는 보조 경기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입장티켓은 별도로 운영
 - 선수들을 위한 탈의실과 간단한 식음료 섭취를 위한 휴식 공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언론사 등 관계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제공
 - 대회 기간 중 선수들 픽업을 위한 별도의 수송 차량 및 팀을 운영



요넥스 프랑스로프
배드민턴선수권대회



2023년 전주시 시니어배드민턴홍보

○ 맨체스터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간담회 실시(유학생 자료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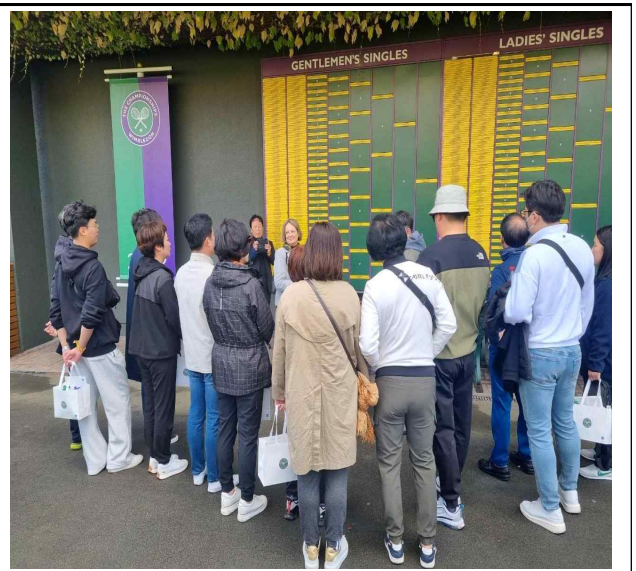
- 맨체스터유나이티드 축구단은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Manchester United Foundation의 이름으로 지역사회공헌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 2021년도 기준 팬기부금 및 경기장 투어 수익금 26억, 선수 관련 물품판매 등 사업 35억, 선수이적 등 사업 70억, 투자 관련 등 사업 62억으로 총193억의 수익을 창출
- 해당 수익 중 지역사회에 지출한 금액은 지역축구(유소년 축구, 여성축구, 장애인 축구, 3부, 4부 리그 지원)발전 지원금으로 9억원, 지역자선활동 58억원, 재단운영을 위한 자산 적립 58억원, 기타(재단운영자금 및 급여 등)로 68억 원을 지출
- 재단은 총 78명의 정규직과 스포츠 경영과 금융 전공자로 구성된 기금운영관리자 9명, 자원봉사자 50명으로 운영 중
- Manchester United Foundation의 지역지원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16세 이상 지역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경영 및 직업 체험학교,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맨체스터의 코칭(선수 관리) 철학을 기본으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BTEC 프로그램, 사회적평등의 관점에서 축구를 즐기는 장애인 축구 지원, 여자축구 지원, TIER1그룹(국가대표급) 여자축구선수육성 프로그램, 8세~18세를 위한 축구 체험 프로그램(기술, 환경개선), 5세~11세를 위한 축구 체험 프로그램(축구를 통한 철학, 체력 증진 등 국제적 표준 프로그램)이 있음

○ Wimbleton 경기장 운영 등 벤치마킹

- Wimbleton 경기장은 유일한 잔디 경기장으로 20개의 연습 코트와 19개의 경기 코트로 운영중이며, 2주간의 대회기간 동안 700경기 진행과 50만명의 관중이 방문하며, 100년의 역사를 가진 Wimbleton 공식 테니스공인 슬레진저는 대회기간 동안 54,000여개 사용
- 대회 기간 중 Wimbleton 경기장은 Wimbleton 지역의 6,000여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며, 야외 관중들을 대상으로 Wimbleton 지역 특화상품인 딸기를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대회가 없는 기간에는 관광객투어로 영국관광청의 공인 가이드 자격증인 블루벳지를 소유한 해설사(블루벳지를 소유한 가이드만이 Wimbleton 경기장을 해설 할 수 있음)와 함께 하루 30명 미만 6회 경기장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



맨체스터 대학 유학생과 간담회



윌블던 경기장 방문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2023 전주월드시니어배드민턴대회를 준비하며 워블던 하면 테니스가 있듯이 전주하면 배드민턴이라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전주시를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주축으로 대회를 개최해 권위 있는 대회로 만들 필요성이 있으며, 전주시와 배드민턴의 연결고리를 생성해 전통성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협회와 전주시의 많은 노력과 지원 필요
- 내년 대회가 성공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화산체육관의 장소 구성이 기자의 취재 공간, 선수 휴게공간, 관계자 공간 등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선수들이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인 보조경기장은 국제대회를 위해 꼭 필요한 운영방식으로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준비
- 앞으로 신축될 다목적 스포츠시설 경기장을 지역 상징성이 붙어날 수 있는 도시의 랜드마크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조성
- 세계 대회 및 전국 대회 등 선수단 체류에 따른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우리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는 전주KCC 농구단과 전북현대 축구단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구단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힘써야 할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
- 워블던대회 기간 중 영국의 남동쪽 켄트 지역에서 딸기를 공수해 테니스 기간 동안 딸기와 와인을 즐기는 문화가 되었듯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 지역의 스포츠 산업과 연계하여 특성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관련하여 지역의 스포츠 구단과 지속적인 협업 및 전주시에서 개최되는 세계 대회 및 전국 대회에서의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

전주 월드시니어배드민턴대회준비와 스포츠 특화도시 선정 대비 연구

□ 출장개요

- 일 시 : 2022. 10. 24.(월) ~ 2022. 11. 1.(화)
- 방문국가 : 프랑스, 영국
- 방문목적
 - 2023 전주월드시니어배드민턴대회 개최를 위한 홍보
 - 2022 요넥스 프랑스 오픈 대회 대회참관 및 시설·운영 벤치마킹
 - Wimbleton 테니스구장 스포츠 특화도시 발전 사례 연구
- 작성자 : 이 성 국 문화경제위원

프랑스 오픈 대회와 전주 월드시니어배드민턴 대회 연계 방안

□ 현 황

- 2023년 전주에서는 월드 시니어 배드민턴 대회의 개최 홍보와 대회의 전반적인 계획, 대회 참가선수들을 위한 복지와 대회 관람객들에 대한 기념품 준비.
- 프랑스에서는 학생들 기준으로 3위안에 들어가는 스포츠이자 전 국민들 대상으로 인기 순위에 5위 안에 들어가는 스포츠로 어른만 100만 명 정도 가입, 20만 개의 작은 클럽이 운영.

□ 출장 세부내용

- 프랑스 배드민턴협회 부회장과 매니저의 세부적인 경기장 안내로 보조 코트의 운영상황과 중앙통제실, 선수들의 휴게 공간과 선수 및 언론사와 관계자 공간을 둘러보며 인터뷰를 진행.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

○ 배드민턴 대회 관련 기념품점과 VR 체험공간 운영

- 자국 어린이들에게 3위의 인기 종목인 만큼 캐릭터 포토존과 VR 체험공간을 통해 아이들의 참여율을 높였다. 배드민턴 케이스에 각인을 통한 기념품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배드민턴 지원을 위한 사회 공헌 판매부스 역시 운영.

○ 체육관 규모와 시설 운영

- 4개의 코트로 운영되며 관중석은 3,500석의 규모로 운영되며, 3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입장료는 별도로 운영하며 조명은 선수들에게 시야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별도로 설치.
- 보조 코트는 선수들이 몸을 풀 수 있도록 워업장으로 활용되며 탈의실과 간단한 식음료 섭취를 위한 휴식공간을 별도로 운영한다. 벽면은 셔틀콕이 눈에 잘 띄도록 진한 색으로 덧붙여 놓았으며 언론사가 경기 촬영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1층에 마련.

○ 대회 관계자 공간운영과 선수들의 픽업 담당 시스템.

- 대회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로 글로벌 네트워크, 단체 등에서 연락 왔을 경우를 대비한 공간으로 선수들의 픽업과 수송을 관련한 업무를 별도로 수행.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대회 방문 관광객들을 위한 기념품 부스와 체험 부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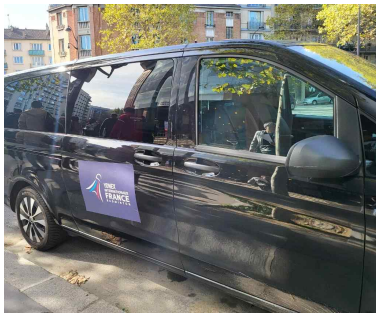
- 대회에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한 기념품 부스 운영과 다양한 체험부스를 통해 성공적인 대회 유치에 기여 필요.

○ 경기장의 조도 설치

- 대회 경기 운영에 알맞은 조명을 설치하여 국제 경기 유치 시 특히 유의하여 선수들이 경기를 진행할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준비.

○ 2023 월드시니어배드민턴 대회의 선수 복지 공간과 픽업시스템

- 선수들이 경기 준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휴식공간 마련과 경기 이외의 부수적인 상황들은 별도의 팀이 픽업을 담당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담당.

프랑스오픈 담장자 면담	프랑스 오픈 기념품 부스	프랑스오픈 픽업 차량
		

영국의 체육특화도시와 전주 지역특화스포츠도시 선정 대비

□ 현 황

-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이행 계획 중 ‘지역 특화 스포츠도시’ 5개 도시 선정을 위해 대비와 국제규모 이벤트 개최 준비.
- 영국의 Wimbleton 테니스장은 천연잔디에서 칠 수 있는 테니스장으로 독일과 네덜란드 영국 4군데로 세계적으로 단 6곳만이 존재.
좌석은 총 1만 2천 석으로 1977년에 건립.

□ 출장 세부내용

- Wimbleton 경기장은 20개의 연습 코트와 18개의 경기 코트로 운영되며 700여 명의 기자가 실시간으로 보도할 수 있는 좌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약 2주간의 대회 기간 동안 50만 명이 방문하며 진행되는 경기의 수는 약 700번. 500명의 클럽 회원이 직접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특화 스포츠 도시 선정에 대비한 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청취.
- Wimbleton 경기장은 시나 도의 보조금을 따로 지원받지 않고 소도시에서 테니스에 특화된 도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와 지역 인재 발굴, 타 지역에 있는 많은 인원이 유입 중.
- 전북 전주에 있는 전주 KCC나 전북현대모터스를 활용하고 이외에도 2023년 세계 월드 시니어 배드민턴 대회가 유치되는 만큼 전주를 지역 특화 스포츠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

○ 워블던 테니스 구장의 야외관중석

- 한 경기당 방송사의 수입은 사천만 파운드로 한화 약 600억 원의 수준. 스폰서가 10% 정도의 좌석을 자체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경기장 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원들을 위해 야외에 14M의 야외 스크린이 설치. 약 3,000여 명의 야외 관중을 수용한다. 잔디에 앉는 인원은 27 파운드(한화 약 40,000원)의 입장료를 지불.

○ 워블던 테니스 대회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

- 첫 번째, 앞서 말한 야외 관중들은 워블던 지역 특화상품인 딸기를 경기장으로 배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현재는 야외 관중들이 경기를 보며 딸기와 샴페인을 먹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
- 두 번째, 워블던 경기장 옆 아파트 입주민들은 대회 시기에 집을 한화 약 5천만 원을 임대료로 받고 기자들에게 임대, 기자들이 경기장을 높은 지대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도움.
- 광고주 역시 2주 동안 5만 4천여 개의 테니스공을 납품하여 이익을 창출.

○ 워블던 테니스 대회 지역인재 육성

- 테니스 대회가 진행될 동안 볼보이는 25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약 1,000여 명이 지원한다.
- 지원자격은 워블던 도시에 거주하는 인원들로 14세에서 18세의 청소년으로 이들에게는 최대의 이력으로 대회 개최 전 6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다.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2023년 세계 월드 시니어 배드민턴 대회와 진행시 야외 관중석 마련으로 많은 관광객들의 분산 유도.
- 지역 내 구단의 경기 진행 또는 국제 대회 유치 시 전주 지역 내 특산물을 이용한 문화조성과 기념품 판매로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 지역 특화 스포츠 도시로 선정을 대비하여 배드민턴 인재 육성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윔블던 테니스장 야외스크린	윔블던 테니스장 야외관중석	윔블던 테니스장 기념품
		

문화관광다양성 및 스포츠 특화도시 육성을 위한 연수 결과

□ 출장개요

- 일 시 : 2022. 10. 24.(월) ~ 2022. 11. 1.(화)
- 대상지역 : 프랑스, 영국
- 작성자 : 장병익
- 주요 출장내용
 - ① 프랑스(2박3일)
 - 2022 요넥스 프랑스 오픈 대회 통한 2023 전주월드시니어 배드민턴 대회 개최를 위한 홍보
 - 한옥마을 경기전 명품 패션쇼 유치를 위한 해외 문화유적(베르사이유) 명품 패션쇼 현장 벤치마킹
 - 전주시 경관조명 확대를 위한 야간관광을 활성화를 위한 세느강 모범사례를 벤치마킹
 - ② 영국(5박6일)
 - 전북현대모터스, KCC이지스, 스포츠산업, 스포츠특화도시, 스포츠 유산화를 통한 관광개발 및 육성을 위한(리버풀구장, 웬블던구장) 현장 방문
 - 맨체스터 대학이 세계적으로 명성있는 스포츠마케팅 및 스포츠 매니지먼트 학과를 보유한 영국의 스포츠 글로벌 인재양성 방식과 교육현장 듣기 위한 간담회
 - 전주시 대표축제 제안을 위해 세계적인 축제 도시인 에딘버러 및 프린지 축제위원회 방문 및 축제를 산업으로 육성 방식 벤치 마킹

1. 2022 요넥스 프랑스오픈

□ 대회개요

- 대 회 명: 2022 요넥스 프랑스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 대회기간: 2022.10.25. ~ 10.30(6일간)
- 대회장소: 프랑스 파리(쿠베르탱 경기장)
- 대회주기: 1년
- 총 상 금: 650.000유로

□ 출장 세부내용

- 쿠베르탱 경기장은 3.500석 3층 규모로 5개 종목을 4개 코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티켓마다 좌석 번호가 부여 되고, 경기 진행은 예선부터 결승까지 가면서 4개코트에서 1개코트로 변경 설치함 경기장은 전체적인 대회 기본 디자인을 활용한 푸른색(진청) 배경으로 랩핑하여 선수들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음

□ 연구과제 관련자료 및 주요내용

- 국제 배드민턴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천장 높이 12m 확인과 경기장 바닥은 탄력 있는 목조 바닥이어야하며 미끄러지지 않은 승인받은 코트 매트를 설치 및 조도는 경기 중 셔틀콧을 쉽게 구분이 가능하게 해야하는 등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잘 되어 있음
- 프랑스오픈이 열리는 쿠베르탱 경기장은 대회 유치를 위해 코트와 객석을 최대한 가깝게 배치를 하였으며, 다양한 조명과 음향을 통해 관중의 집중과 호응을 자극할 수 있도록 했음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2023년 세계시니어배드민턴 선수권대회를 위해 개최 예정 장소인 화산체육관은 국제 규모의 장기적인 대회 유치를 위해 리모델링이 필요하며, 프랑스로프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조명과 음향이다. 오픈식, 선수 입장 및 퇴장, 관중호응 유도 등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케이터링, 중앙통제실, 아이들 전용 공간, 장애인공간 등 누구나 대회를 올 수 있는 편의 시설은 확보는 필수적 요소임

2. 베르사이유 궁전(패션쇼)

□ 현 황

- 전주시는 한옥마을이란 1000만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전라도 도읍지인 전라감영 1차 복원을 완료했으며, 2차 단계 복원 계획중임
- 한옥마을 경기전, 오목대, 전주향교, 전라감영 등 다양한 문화 유적지를 전통을 지켜야 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활용 방안이 필요함

□ 출장 세부내용

- 베르사이유 궁전은 루이14세가 1623년 지은 왕궁이며, 대표 관광지이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왕궁의 웅장함과 내부의 섬세 하면서 화려한 모습은 마치 프랑스의 문화 예술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로 보여짐

□ 연구과제 관련자료 및 주요내용

- 문화재와 글로벌 브랜드의 콜라보를 통한 관광자원화를 위해 거울방에 2012년 샤넬, 2021년 디올 패션쇼를 열어 베르사이유의 화려한 모습을 패션으로 보여주면서,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문화 다양성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글로벌 관광지답게 유적지의 모든 언어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휴대용 기계를 배급 및 현지가이드등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시설 강화 필요해 보임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한옥마을 경기전은 조선왕조의 시작인 태조 이성계 영정이 봉안되어있는 곳이며, 조선왕조의 건축물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한옥마을의 대표 콘텐츠인 한복을 입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관광지로 한복의 대중성을 알리고 있다. 이 곳에서 한국의 대표 의상인 한복 패션쇼를 열어 경기전과 한복의 콜라보 전 세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전주 청년 한복디자이너인 리슬 대표는 최근 밀라노 패션쇼의 초대 받아 30년 만에 한복을 알리고 있음

3. 세느강 경관조명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전주는 도시 특성상 전주천과 삼천천이 흐르고 있으며, 시내로 들어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리만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 중 한옥마을(남부시장) 옆에 위치한 완산교와 매곡교는 과거

우시장, 쌀시장이 열렸던 곳으로 경관조명을 설치하면, 야간 관광지를 위해 개발이 필요해 보이며, 점진적으로 전주에 다리를 경관조명을 설치를 검토하여, 전주의 도시이미지 개선 및 관광대발이 필요성이 느껴짐

4. 리버풀, 웬블던 경기장(스포츠마케팅)

□ 현 황

- 대한민국 인기 스포츠 구단인 전북현대, KCC가 운영이 되고 있는 연고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를 활용한 관광상품 및 지역 연계 관광마케팅 부족한 실정

□ 출장 세부내용

- 영국은 대표적인 스포츠 특화도시로써 엘리트 스포츠 육성보다는 생활스포츠가 발전되고 있으며, 노동 근무시간 유연화로 여가 시간을 운동과 스포츠 중계로 보내고 있다. 영국은 스포츠산업 진흥법도 개정되어 스포츠 팀이 경기장을 장기 임대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스포츠 캐릭터, 색, 스포츠 유산화 등을 통해 관광상품을 만들고 있다. 전세계에서 1등 인기 스포츠인 축구의 고향으로 리버풀구장은 120년 이상의 전통의 프리미어리그 3대구단 중 하나이며, 다양한 팬과 스폰서를 보유하고 있다. 웬블던은 4대 테니스 대회 중 하나로 그 역사와 대회의 상징성은 모든 대회를 막론하고 최고의 대회로 알려져 있다. 웬블던 대회의 시초는 1877년 롤러비용 10파운드를 마련하기 위해 대회를 유치 하였으며, 현재 웬블던 장소는 1922년에 이전했다. 총 구장은 18개이며, 20개의 연습구장을 가지고 있다. 대회는 일년에 총 2주간 개최가 되며, 이를 위한 해 동안 정규직 160명과 관리 비용을 상당히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워블던대회 기간중 방송 수입은 4000만파운드 중 10%를 지역발전기금에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농산물인 딸기를 고급화해 판매 육성되고 2주대회 기간에 약 6,000명의 지역 인재 채용 및 지역인재 250명을 고용하고 있다. 대회기간을 제외 하고 하루 투어인원은 200명 정도 되고 있다. 이중 외국인 관광객은 70%에 해당한다.

□ 연구과제 관련자료 및 주요내용

- 리버풀과 워블던은 영국 방문시 찾는 대표적인 스포츠 관광지로 지자체는 도시 및 대회의 역사, 관광, 스포츠 등 모든 교육을 이수한 전담 해설사를 배치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의 벤치 마킹 도입이 필요해 보임
- 영국은 스포츠도시로 산업규모는 약 30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종사자는 41만 7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스포츠산업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스포츠교육 대학이 존재하며, 매년 수많은 유학생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 유학하는 등 스포츠산업을 위한 교육 부분을 집중하고 있음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스포츠 특화도시 선정을 위한 전주는 1000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거점도시이며, 2개의 프로 구단과 많은 생활체육 동호인을 보유한 도시이지만 관광학과 1개소, 스포츠 매니지먼트학과는 없는 상태이다. 전주시, 대학교, 프로구단 협업을 통해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하고 취업 연계를 통해 스포츠산업 일자리양성 및 스포츠 교육 부분의 선도가 필요하다. KCC, 전북현대와 스포츠 상품개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허웅, 백승호 등 스포츠스타가 전주의 지역 관광,

먹거리, 지역등 스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주라는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필요해 보임 마지막으로 전주는 관광 및 문화 해설사를 육성 하지만, 그 활용도는 현저히 적은 편으로 개선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문 해설시스템도 필요함 향후의 스포츠 특화도시 및 스포츠 관광을 위해 전문 해설가 양성을 검토해야 함

전윤미 의원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성공사례

□ 출장개요

- 일 시 : 2022. 10. 28.(금) 14:30
- 방문국가 : 스코틀랜드 (수도:에든버러)
- 방문목적
 - 2023 전주월드시니어배드민턴대회 개최를 위한 홍보
 - 2022 요넥스 프랑스 오픈 대회 대회참관 및 시설·운영 벤치마킹
 - 도시재생 및 스포츠 특화도시 등 지속가능 발전 사례 연구
- 작성자 : 전윤미



□ 현 황

- 1947년 프린지 페스티벌은 에든버러 국제페스티벌 시작 당시 초청받지 못한 공연팀들이 자생적인 공연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해마다 수백개의 공연단체가 참가하여 수천 건이 넘는 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연 분야로는 코미디극·음악·어린이극·뮤지컬·오페라·무용·신체극·전시 등이 있으며, 인터뷰를 통해 전주시 축제에 접목할만한 요소를 탐색하고자 함.

□ 출장 세부내용

- 프린지 페스티벌 운영 관련 관계자 인터뷰 진행
: Chris(프린지소사이어티-예술가 지원 담당),
Allen(행사 장소 및 등록, 관리 담당) 인터뷰
- 버스킹 공연 관람



- 에딘버러성, 세인트자일 성당의 관람을 통해 종교문화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자원화와 지속적인 언론 노출을 통해 지역 필수 관광코스로 육성된 성공사례지 방문
- 프린지 축제위원회(Fringe Society) 방문을 통해 축제를 산업으로 육성한 노하우를 학습하고 추후 벤치마킹하여 전주시 축제산업의 정체성 수립 및 방향성 제안을 바탕으로 전주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토록 하는 방안 연구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한국 전통문화 대표 도시 전주를 세계적인 축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전 준비 및 홍보방식 검토
 - 프린지 소사이어티 역할을 하는 운영 주체 설립
 - 전주시 페스티벌을 위한 명칭 공모(가칭: 전주 아트 페스티벌)

-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결성(문화예술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주도하여 지역예술인들과 민간인들이 협업하는 협의체 구성)
 - 전주시 대표 관광지 한옥마을을 거점화한 공연 활동 진행
 - 기자 및 인플루언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셜미디어 등의 홍보·마케팅 진행
 - 글로벌 홍보를 위한 24개국 이상 초청
- 기존 전주시 관광장소 연계를 통한 활용방안 구상
- 한옥마을을 거점으로 전라감영, 객사, 영화의거리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버스킹 공연 진행
 - 전통문화전당, 한벽극장, 대사습청, 풍남문, 남부시장을 활용한 전통문화 체험활동 진행
 - 그 외 활용 가능 지역(지역소극장, 부채문화관, 향교, 동헌, 풍남문, 청년몰, 오목대, 남천교, 서학마을, 전동성당, 어진박물관, 경기전일원, 동문사거리)에 대한 활용 방안 검토
-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식 검토
- 숙소할인권 및 체험권 할인, 식사 할인권 제공
 - 티켓의 다양화(장애인할인, 노인할인, 단체할인, 가족할인)
- 온라인 축제 플랫폼 전환에 따른 운영 방식 검토
-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2021년 에딘버러 프린지는 축제 방식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운영한 경험이 있음
 - 온라인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의 경우,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함

2022 프랑스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

운영 벤치마킹

□ 현 황

- 프랑스 파리에 위치해 있는 쿠베르탱 경기장에서 국제대회인 2022 요넥스 프랑스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열림.
- 다목적 경기장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다양한 마케팅으로 도시 랜드마크 조성, 성공사례를 통한 벤치마킹.

□ 출장 세부내용

- 2023 전주시니어배드민턴대회 홍보
- 2022 요넥스 프랑스오픈배드민턴경기 관람 후 빛의 도시인 파리의 세느강변 야간 경관 조명을 활용한 도시 마케팅
- 전체 시설 투어 및 운영 관련 인터뷰 일정
경기장-보조코트-중앙통제실-선수 및 관계자 휴게공간-VIP 라운지-요넥스 브랜드 및 대표선수 홍보관/라켓정비 공간-선수 및 언론사 등 관계자 공간/Mixed Zone-대회 관계자 사무실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

- 2023년 요넥스 프랑스오픈경기를 직접 관람하고 경기장 주변 인프라를 둘러보면서 2023세계시니어배드민턴대회 개최장소인 화산체육관의 리모델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토론.
- 경관조명을 활용한 도시 마케팅 사례를 선상에서 둘러보고 전주시의 야간관광과 무엇이 다른지 비교하여 토론.

□ 활용방안

- 2023세계시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화산체육관에서 열흘간 개최될 예정으로 전주지역의 관심과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그리고 시설 또한 일시적 시설 개선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 사용 가능한 국제대회 시설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 배드민턴 경기와 축제를 가미한 종합 페스티벌 형식의 스포츠 축제
 - 지역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
 - 가족단위와 단체참가에 관광 및 소비 활동에 따른 부가수입 창출
 - 세계적으로 은퇴한 시니어 레전드 배드민턴 스타들을 초청함으로써 미디어 홍보를 하고 관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야외 페스티벌 행사를 하여 대형 휴게실 및 공연장 설치 (국악무대공연, 전통춤공연, 에어로빅 강습, 락밴드공연, 비보이 공연등)
 - 야외 배드민턴 코트 설치/ 어린이체험코트 (누구나 자유롭게 배드민턴 체험)
 - 대회 기념품 판매 및 체험 (전주부채, 전주한지, 전주 특산품, 공예품)

□ 도입 과제

-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고 전주시 스포츠산업의 발전의 기여
 - 경기장내에 환경개선을 위한 노후된 LED 교체 필수
 - 노후 커튼 교체 필수
 - 관광호텔숙소와 대회장까지의 셔틀버스 운영

- 경기장내의 BWF 식당운영과 관람객의 음료등을 판매 가능한 편의시설 마련
- 전통문화도시인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공연등을 보면서 경기도 관람할 수 있도록 전주시 전체로 문화공연 활용 방안(공연무대마련, 버스킹공연, 경찰, 소방인력 배치 등 안전을 위해 미리 대책마련)
- 장애인 편의 시설 확보
- 보조코트 외에도 선수 및 관계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 공간에 간단한 다과 식사 케이터링 준비
- 소지품을 놓을 수 있는 공간
- 선수들 게임 공간
-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포토존 마련
-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서 전주시 10부제 실천
- 대회 마스코트 시민에게 공모
- 대회 기념품 (전통공예품 활용)